

여사시대



양희은·김일중입니다

6월
2026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2026 신춘편지쇼 수상작

행복을 찾는 사람들

IBK기업은행 평촌지점 거래고객
제이에스병원 김제균 병원장

IBK로 국민연금 만나고 일상이 즐거워졌다

국민·공무원·사학·군인까지
4대 연금과 IBK가 만나면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IBK로 첫 4대 연금 받거나
IBK로 연금 계좌 바꾸면
최대 6만원의 혜택이

쉽고 편하게 IBK로
든든하게 IBK로

개인금융도 역시, IBK



IBK점에서 쉽게, 지점에서 편하게
연금 입금계좌변경 서비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최대 6만원의 혜택을 받으세요
4대 연금 첫 수령 고객 이벤트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26-3046호(2026.04.15) [유효기간: 2026.12.31]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이벤트와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편집소	입선
최우수상	54 두 번째 프리포즈
16 인생의 마지막 날	61 고을 연 붉을 주
희망처럼 날아온 아들	67 나의 청춘에게
우수상	75 땀! 귀경길에 튼 사랑
22 20살이 되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	81 버터온 시간의 이름 청춘
31 큰오빠의 ‘희생’이라는 젊은 청춘	장려상
가작	87 서른일곱의 내가
39 나의 영웅 곽한길을 기억하며	서른일곱의 당신에게
43 폐허를 지나 청춘의 집으로	94 말아라! 청춘
49 가짜 수학여행	
100 만화로 보는 여성시대	107 김일중의 스튜디오에서
104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감사의 마음
나의 청춘은	110 행복을 찾는 사람들
	제이에스병원 김제균 병원장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6년 6월 10일 발행인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김일중 프로듀서 박정연, 이용선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콩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견월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신춘편지쇼

정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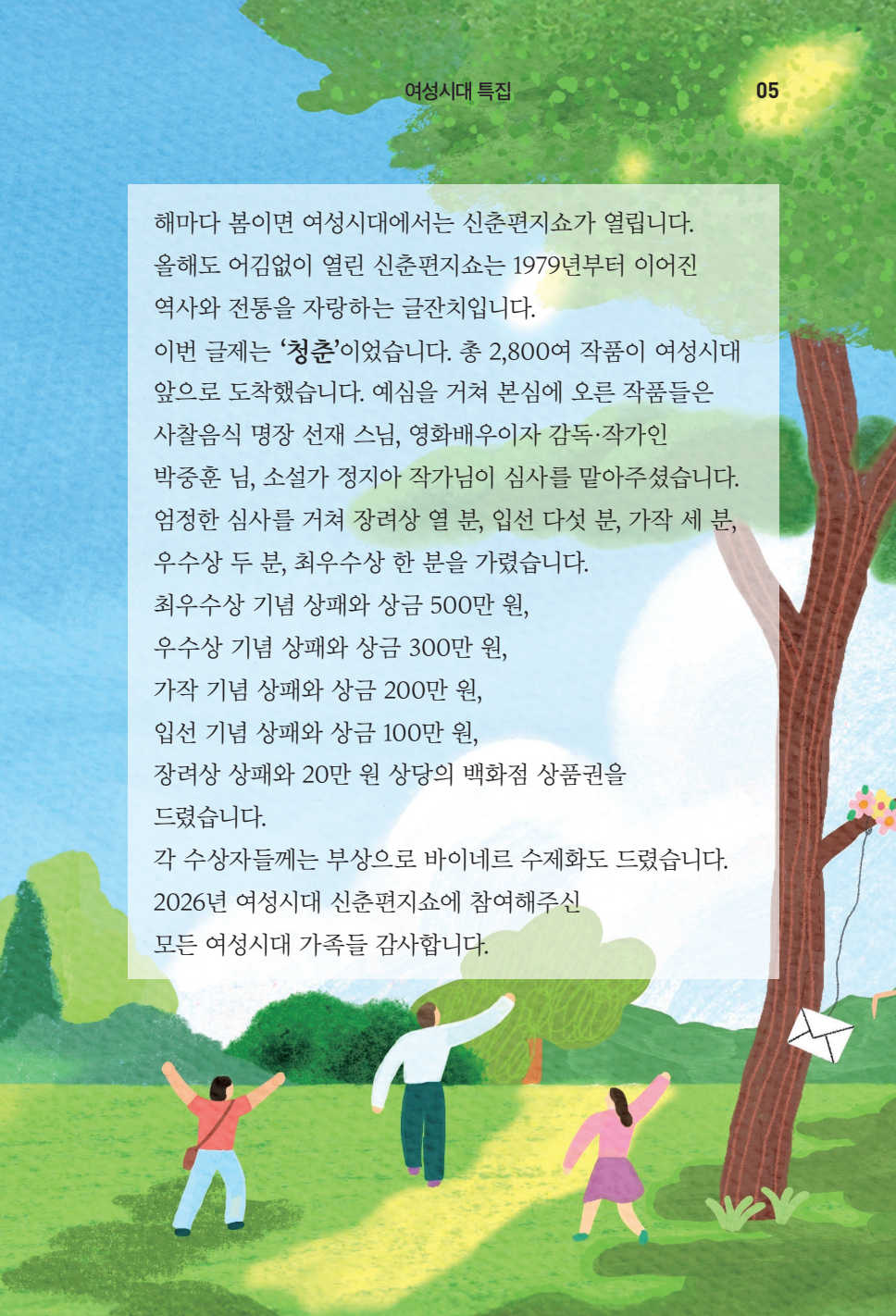


해마다 봄이면 여성시대에서는 신춘편지쇼가 열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열린 신춘편지쇼는 1979년부터 이어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글잔치입니다.

이번 글제는 ‘청춘’이었습니다. 총 2,800여 작품이 여성시대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오른 작품들은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 영화배우이자 감독·작가인 박중훈 님, 소설가 정지아 작가님이 심사를 맡아주셨습니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장려상 열 분, 입선 다섯 분, 가작 세 분, 우수상 두 분, 최우수상 한 분을 가렸습니다.

최우수상 기념 상패와 상금 500만 원,
우수상 기념 상패와 상금 300만 원,
가작 기념 상패와 상금 200만 원,
입선 기념 상패와 상금 100만 원,
장려상 상패와 2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렸습니다.

각 수상자들께는 부상으로 바이네르 수제화도 드렸습니다.
2026년 여성시대 신춘편지쇼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성시대 가족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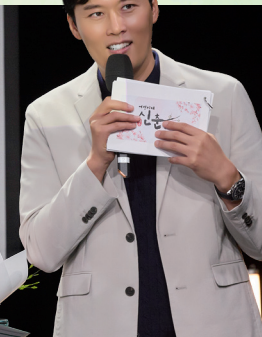


지난 5월, 영광의 수상자들을 MBC 골든마우스 홀에 모시고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그 빛나고 아름다운 순간을 지면에 담았습니다.









2026 신춘편지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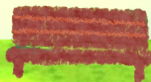
심사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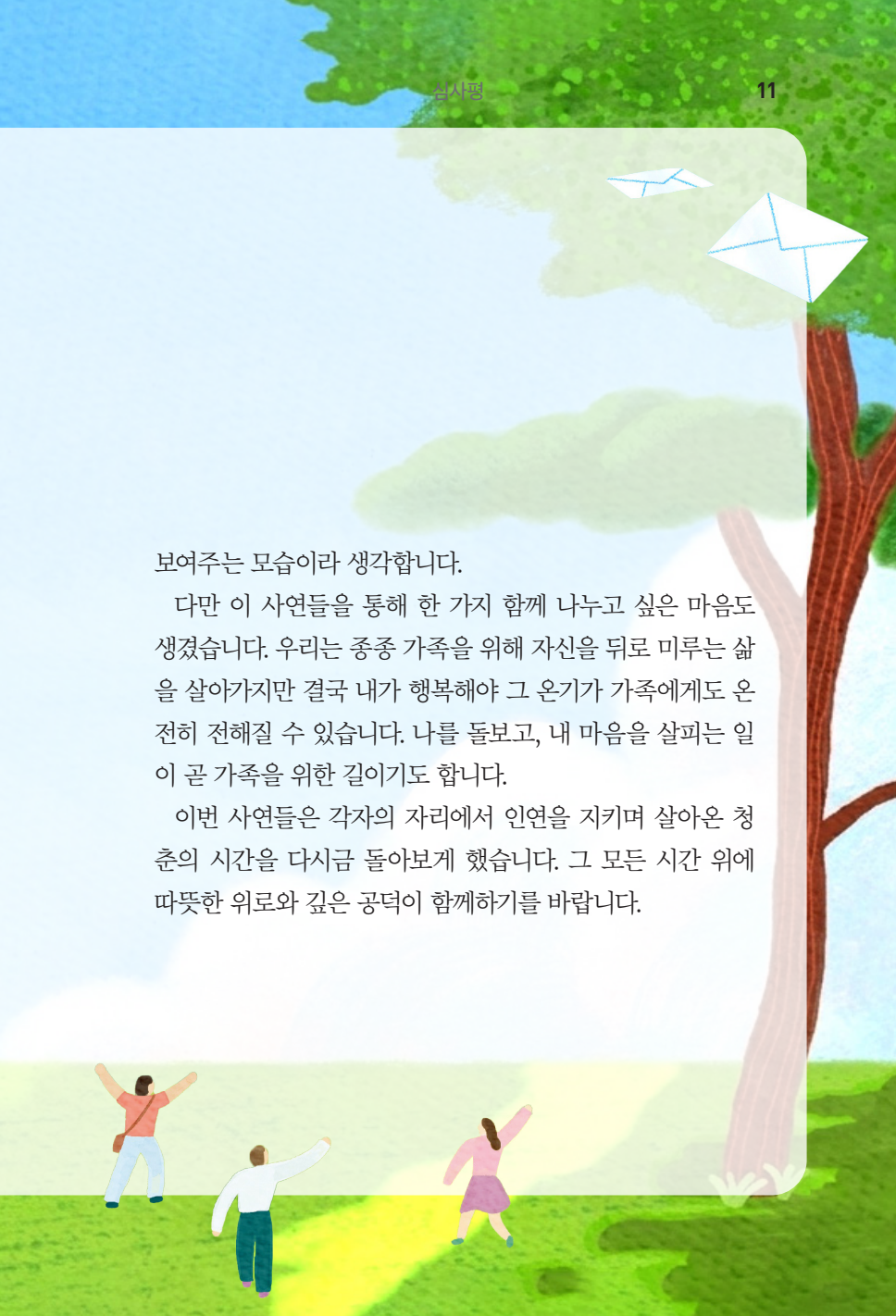
인내를 넘어 사랑으로

선재 쌤

이번 사연들을 읽으며 마음 깊이 와닿았던 것은 가족을 향한 인연의 끈과 그 안에서 묵묵히 이어져 온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를 위해, 또 누군가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내려놓으며 살아왔고, 그 시간들은 수행하듯 조용히 그러나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 희생이 단순한 인내를 넘어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나온 청춘의 순간들이 아련한 그리움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동시에 삶을 지탱해 온 따뜻한 힘이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 서로를 향한 자비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연들을 통해 한 가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을 위해 자신을 뒤로 미루는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내가 행복해야 그 온기가 가족에게도 온전히 전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돌보고, 내 마음을 살피는 일이 곧 가족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연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인연을 지키며 살아온 청춘의 시간을 다시금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 위에 따뜻한 위로와 깊은 공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026 신춘편지쇼

심사평

힘들게 피어난 꽃일수록 더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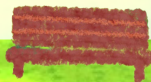
배우 박중훈

27년 전에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지금쯤 90대 후반이셨을 겁니다. 그 시대의 어른들은 일제강점기에 10대를 보냈고, 이어 10대에는 제2차 세계대전, 20대에는 한국 전쟁을 겪었습니다. 경제적 극빈은 기본이었고 가정환경 또한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청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인간은 결국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셨을까. 얼마나 막막하셨을까. 그 시간을 견디고 살아내신 아버지를 깊이 존경합니다.

이번 <2026 신춘편지쇼>를 심사하면서 솔직히 많이 아팠습니다. 편지를 읽는 저조차 버거울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



으니 그 시간을 온몸으로, 인생으로 살아낸 분들은 과연 어땠을지 쉽게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사람처럼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편지 하나 가볍지 않았습니다. 읽는 내내 숙연해졌습니다. 편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고 버텨낸 이야기들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감동이었습니다. 모든 사연에 만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도 조금 더 ‘희망’을 말하고 있는 글들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힘들게 피어난 꽃일수록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보내주신 모든 편지, 감사한 마음으로 잘 읽었습니다.



2026 신춘편지쇼

심사평

진실의 힘

소설가 정지아

아무리 위대한 소설도 진실의 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본 마흔네 편의 글 모두 어떤 소설보다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명 일간지의 신춘문예 심사보다 보통의 사람들이 쓴 보통의 글을 심사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마흔네 편의 글을 읽은 소감을 한마디로 압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살아내느라 힘드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합니다. 매 글을 읽으며 울었고요, 감사했고요, 제가 뭐라고 이런 대단한 생을 견뎌내신 여러분의 글을 심사하는 건지 부끄러웠습니다. 모든 글에 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해야 했기에 순위를 매기기는 했습니다만 모든 글이 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수상을 하지 못하셨더라도 낙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음 아팠던 몇 편의 글이 있습니다. 부모와 남편에

게 상처받고 아직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의 글입니다. 힘내시라고 곁에 있다면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글을 뽑지 않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비로소 사람에게 대한 애정이 생기고 애정이 담긴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뽑은 글은 글솜씨가 대단해서 뽑힌 것은 아닙니다. 상처로부터 이미 자유로워졌고, 상처로 인해 더 넓게 더 깊게 사람을 포용하고, 그리하여 읽은 사람들에게 따스한 온기를 나눠주는 글에 최고점을 주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수학 여행 가지 못해 쓸쓸한 아들을 보듬어준 어머니, 선천적 질병과 평생 함께하면서도 꿈을 잃지 않은 스무 살 청춘, 늘 고달팠으나 지금도 김밥을 말며 오늘의 온기를 나누는 어머니들, 소중한 시간을 나눠 쓰며 세월을 견뎌온 가족,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이 있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오늘의 제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에게 배웠습니다. 생의 고통에 짓밟히지 않고 꾸역 꾸역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청춘이라는 것ですよ.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나이가 몇이든 지금, 이 순간 청춘을 살고 있는 겁니다. 청춘은 지나간 것이 아님을, 아스라이 기억 저편의 것이 아님을 여러분의 글을 읽으며 배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 여성시대 신춘편집소

최우수상

인생의 마지막 날 희망처럼 날아온 아들

애청자

제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버려질 뻔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였지만 제 아이를 데려올 수 없는 처지였고, 내 아이를 찾기 위해 8개월 동안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단 3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믿고 맡겼던 사무실 총책임자가 도박에 빠진 겁니다. 동료들이 몇 번이나 말리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나 봅니다. 필리핀과 강원랜드를 오가며 몰래 날려버린 사무실 돈이 38억 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그 사건으로 사무실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저 역시 전 재산과 투자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제게 남은 건 막대한 빚뿐이었죠. 어제까지 평범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차를 몰고 바닷가로 뛰어 들고 싶을 만큼 우울함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 제게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와 배 속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지만 무너진 현실 앞에서 그녀의 마음도 함께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임신 8개월째였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병원에 갔고 그날 아이를 낳았습니다. 2.31kg 손바닥만 한 아주 작은 남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기쁨은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아이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하고 서류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물었습니다.

“선생님이라면… 본인 아이라면 보내시겠습니까…?”

그날 저는 아이를 안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아는 형님의 고시원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품에 안고 밤새 생각했습니다. 내 손엔 빚뿐인데 이 아이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제 마음속에서 하나의 답이 나왔습니다.

‘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이 아이만큼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키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이를 품에 안고 밤잠 설치가며 버텼습니다. 젓병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고 새벽마다 울음을 달래며 석 달을 버텼습니다. 그러다 다시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었는지, 다시 함께 키울 수는 없는지...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이를 1년만 맡길 곳이 있다. 그동안 빚을 정리하고 다시 데려오자.”

저는 일을 해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작은 아이를 잠시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일주일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아이를 맡긴 곳이 서울 주사랑교회의 베이비박스였다는 겁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제발... 제 아이를 돌려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절차가 진행되었으니 경찰서에 가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바로 서울 용산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DNA 검사 결과, 수백 장의 사진과 영상 등 제가 친부라는 증거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벽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남성은 출산 당사자가 아니기에 친부 확인이 되어도 아이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그리고 재판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8개월 만에 다시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끌어안고 정말 오래 울었습니다. 미안해서, 고마워서, 살아줘서...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어쩔 줄 몰라 하던 공무원분들 그리고 법의 바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저 같은 개인들은 정말 길고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닐지 모릅니다.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했을 뿐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

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조금만 더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 준다면 이런 문제들도 분명 해결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또 하나의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전례가 없다며 아이를 제 가족으로 등록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입니까?”

그리고 3개월 후 마침내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가능합니다.”

그날 제 아들은 비로소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제 아들로 말이죠.

그때부터 우리 둘은 한 몸이었습니다. 일할 때도 밥 먹을 때도 항상 아기띠로 제 가슴과 등에 붙어 있던 아이.

어느 날 일을 하러 현장에 갔을 때 한 과장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아기를 안고 노가다 하러 오면 어떡하냐.” 그러더니 “내 교대 시간이니까 잠깐 봐줄게”라며 한 시간 넘게 아기를 봐주셨습니다. 그 감사함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세상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도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어느덧 그 아이가 11살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빛을 갠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치고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아들이 저를 보며 웃어줍니다. 그 웃음 하나

로 저는 다시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를 위해 버티고 계신 전국의 미혼 부·미혼모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남자 혼자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지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우리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버티는 이유는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빠는 아직도 빛을 갇으며 살고 있고 남들처럼 편하게 해주지도 못해 가끔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싶을 때도 있어.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빠는 10년 전 그날을 떠올린다. 작고 따뜻했던 너를 처음 품에 안았던 그날. 세상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날, 아빠 인생의 마지막 날 같았던 그날, 너는 희망처럼 아빠 인생으로 날아와 주었어. 그래서 아빠는 단 한번도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많은 걸 잃었지만 아빠는 너를 얻었으니까. 그것만으로 아빠 인생은 충분히 행복하단다.

아들이야, 혹시 나중에 네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줘. 아빠는 세상이 다 무너졌던 날에도 너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앞으로도 아빠는 언제까지나 네 편이라는 걸. 정말 사랑한다.

“너를 지켜낸 그 순간이 아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춘이었다.”

2026 여성시대 신춘편집소

우수상

스무 살이 되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

이하린 | 경기도 평택시 현신길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생이라는 커다란 시험대 앞에 선 2007년생 스무 살 이하린이라고 합니다. 친구들은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 갈 때, 저는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사실 제 스무 살은 남들보다 조금 일찍 조금 아프게 시작됐거든요.

어릴 적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용감하고 튼튼한 아인 줄 알았어요. 다쳐도 아픈 줄 모르고 운동장을 누볐고, 남자애들과 축구하며 지냈고, 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죠. 초등학교 3학년 때 남자애들도 찢찢매며 못 깨던 두꺼운 각목을 제가 단번에 격파해 버리기도 했어요.

“역시 난 천재 운동선수 체질이야! 하하하~”

검도장 친구들과 신나게 웃었죠. 그런데 제 손이 부어있는

걸 검도 관장님이 보시고 부모님께 연락하셨나 봐요. 좀 이상하다고요. 다음날 병원에서 X-ray 촬영을 해보니 손등뼈가 여러 군데 골절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들은 비명을 질렀을 고통인데 저는 그냥 조금 부은 줄만 알았어요.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제 몸이 이상하다는걸요. 이게 제 인생 첫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그 후 그런데도 운동에 매진하며 지내던 어느 날 축구선수로 뛰며 지역 신문 인터뷰까지 했던 제게 ‘척추 측만증’이라는 낯선 이름의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척추가 S자로 휘어져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몸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고등학생 시절 내내 저는 친구들이 예쁜 옷에 핏을 고민할 때 딱딱한 플라스틱 보조기를 몸에 두르고 살아야 했습니다. 여름이면 땀이 차서 살이 짓무르고 잘 때도 누워서 뒤척이지 못해 옆드려 선잠을 청해야 했던 저. 그때는 정말 숨쉬기조차 답답한 그 보조기가 마치 저를 가둔 감옥 같았어요. 하지만 그 보조기를 찬 채로 학교에 가고 남들 몰래 눈물을 흘리면서도 운동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계속 운동하고 싶었어요.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 척추를 바로잡으려 애썼지만 결국 졸업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 말 휘어진 뼈가 장기와 허리까지 압박할 수 있다는 진단에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라는 교수님을 찾아 대학병원 수술대 위에 누웠던 그날 아침을 잊지 못합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차가운 복도 끝에서 저희 가족은 멈춰서야 했거든요. 신경

외과 선생님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떼셨어요.

“신경이 척수관 벽에 너무 바짝 밀착되어 있어서 수술 도중 신경을 건드리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순간의 정적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걸 봤어요. 하지만 수술을 맡아 주신 교수님의 단호한 결단으로 겨우 수술을 마쳤는데 수술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뒤 또 다른 소견으로 저는 다른 대학병원의 소아신경과를 찾았고 그곳에서 ‘키아리 증후군(척수공동증)’이라는 낯선 병명을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부모님께 호통을 치셨어요.

“이 아이는 척수액이 흐르는 통로가 텅 비어 있어서 신경들이 벽에 붙어 압박받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척추 수술부터 시키면 어떡합니까!”

그 순간 제 머릿속엔 지난 십수 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적 손등뼈가 여러 군데 골절되어도 아픈 줄 몰랐던 이유, 한겨울 추위에도 무덤덤했던 이유 그리고 남들보다 유난히 심하게 휘어져 버린 제 척추까지 그 모든 이상 신호가 사실은 제 몸이 저에게 보내던 ‘살려달라’는 비명이었습니다. 신경이 마비되어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던 그 무서운 병이 제 어린 시절의 ‘무모한 용기’ 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 나이 13살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척추 수술 한 달 만에 다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머리 뒤쪽을 절개하

는 큰 수술이었습니다. 남들은 평생 한 번 겪기도 힘든 대수술을 1년 사이 아니, 한 달 사이에 두 번이나 치러내며 저는 제 몸에 남은 흉터만큼이나 깊은 삶의 무게를 배웠습니다.

오진으로 잘못된 수술을 받았지만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병을 정확히 알게 된 날 비로소 저 자신과 화해할 수 있었거든요. ‘아! 내가 이상해서 안 아팠던 게 아니구나. 내가 약해서 등이 흰 게 아니었구나’ 하고요. 그날의 수술 자국은 저에게 상처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은 제 청춘의 가장 뜨거운 ‘인증마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키아리 수술을 마치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아니 남들보다 더 씩씩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1년 뒤 정기 검사를 위해 다시 찾은 병원에서 저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려야 했습니다.

“척수공동증이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재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1년 전 그 지옥 같았던 수술실의 공포, 마취에서 깨어날 때의 그 고통을 다시 겪어야 한다니 척수관 안에 다시 비어져 생긴 그 공간이 제 희망을 앗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아픔보다 더 무서웠던 건 제 곁에서 무너져 내리던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평생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의 죽음과 고통 앞에서 단단하게 중심을 잡던 강철 같은 우리 엄마가 ‘재수술’이라는 세 글자 앞에서 아이처럼 영영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미안해, 하린아. 엄마가 미안해. 다 엄마 탓인 거 같아서 어찌니...”

자신을 탓하며 어깨를 들썩이던 엄마의 그 처절하고 슬픈 뒷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제 몸이 아픈 거보다 저 때문에 엄마의 마음이 갈가리 찢어지는 걸 보는 게 수백 배는 더 고통스러웠어요. 수술실로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눈에 맺힌 건 제 수술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혼자 복도에 남겨져 울고 있을 엄마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겨우 열네 살. 1년 사이에 전신마취를 세 번이나 견뎌야 하는 제 운명이 너무 가혹해서 처음으로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수술대에 누워 천장의 밝은 조명을 바라보는데 ‘나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참아왔던 눈물이 견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시 그 수술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저보다 더 가슴이 찢어질 부모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저를 위해 기도하며 손을 꼭 잡아주던 아빠의 떨림도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울 가장 뜨거운 기도였다는 걸요.

두 번의 키아리 수술과 척추 측만 수술까지 세 번의 사투를 벌이는 동안 제 몸엔 수많은 흉터가 남았지만 그 흉터마다 엄마의 눈물과 아빠의 사랑이 밴 연고가 발라져 이제는 단단히 아물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수술받고 병원에 머물렀던 그 몇 달은 몸이 너무 무겁고 머리 뒤쪽 수술한 곳이 타들어 가듯 아팠지

만 이상하게도 참 따뜻했습니다. 늘 바쁘게 환자들을 돌보던 간호사 엄마가 오로지 나만을 위한 ‘전담 간호사’가 되어 제 곁을 지켜주었거든요. 좁디좁은 병원 보조 침대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잠들던 엄마, 밤새 제 열을 체크하고 입맛 없는 저를 위해 정성껏 죽을 떠먹여 주던 엄마의 온기. 킁킁 웃으며 숨겨서 같이 나눠 먹던 컵라면, 그 통증 가득한 병원 생활이 저에게는 역설적으로 엄마와 가장 깊이 사랑을 나누는 제 생애 가장 행복했던 데이트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픈 덕분에 엄마를 독차지했네’라며 철없이 웃기도 했었죠.

세 번의 수술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척수가 비어 있을지 몰라도 그 공간을 채워준 건 가족의 사랑과 저의 꺾이지 않는 의지였다는 것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또 멈추지 않았어요.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국제학교 진학을 결정하고 면접을 볼 때인데 영어반 선생님과 함께 간 하와이 여행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새벽에 혼자 화상 면접을 보던 그때, 저의 간절함에 합격했지만 이번엔 집안의 급작스러운 경제 사정으로 좌절됐을 때 또 한 번 나의 꿈을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독한 다짐도 그때 생겼어요. 하지만 그 아쉬움조차 이제는 제 성장의 거름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12년 넘게 검도를 수련하며 3단을 뺐고 이제 곧 4단 승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수술로 제 오른쪽 손은 예전 같은 힘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검도를 할 때도 무거

운 짐을 들 때도 제 오른손은 남들의 30%만큼만 제 말을 들 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검도인의 길에서 오른손 힘이 부족 하다는 건 어찌면 날개 하나를 잃은 새와 같은 절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30%의 손으로 남들보다 세 배 더 단단하게 세상을 움켜쥐기로 했습니다. 비록 검을 휘두를 때 오른손의 컨트롤은 서툴지 몰라도 그 서툰 손끝에서 저는 또다시 새로운 세상을 그려나가고 있거든요.

요즘은 묵묵히 어느 누구보다 성실하게 가족을 지켜 오신 아빠와 함께 인생 최대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예비창업패키지’라는 도전 이죠. ‘아파트와 음악 그리고 소통’ 아빠가 현장에서 보고 느 낀 지혜에 제가 가진 젊은 감각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더했습 니다. 밤새 모니터 앞에서 기획서를 수정하고 사업 모델을 고 민하며 아빠와 머리를 맞대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저는 깨 달았습니다. 제 오른손의 힘은 30%일지 몰라도 아빠의 손을 잡은 지금 우리의 힘은 100%를 넘어 무한대로 뻗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어요. 이 사연이 읽히고 있을 즈음엔 ‘예비창업패 키지’의 결과도 나왔을 거예요. 선정되어 활짝 웃고 있을 제 모습도 좋지만 혹여 떨어졌더라도 저는 상관없어요. 결과보다 중요한 건 제가 다시 꿈꾸기 시작했다는 것이니까요.

대학 진학을 잠시 미루고 학점은행제로 차근차근 내실을 다지는 중이고 이제 ‘검도 사범 하린이’를 넘어 ‘세상을 위로 하는 아티스트 창업가 하린이’로 거듭나려 합니다.

저의 스무 살은 비록 굴곡진 S자 척추처럼 휘어 보이지만

이제 그 굴곡은 제 인생을 더 탄탄하게 받쳐주는 가장 단단한 근육이 되었습니다. 30%의 악력으로 세상 그 누구보다 뜨거운 꿈을 움켜쥐고 있는 ‘하린이의 스무 살’. 저는 오늘도 제 청춘의 가장 멋진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자기를 믿는 세상의 모든 스무 살의 서툰 청춘들에게 제 에너지가 당기를 바라며 저와 우리 아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 2026년 봄 신춘편지쇼에 이하린 드림.

(부족한 부분이 있어 더 씁니다)

사실 제 가슴 한구석에는 아직 꺼내지 못한 돌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작년 5월에 돌아가신 친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참 수술과 재발을 반복하며 마음이 날카롭던 사춘기 시절, 할머니의 따뜻한 걱정조차 간섭처럼 느껴져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래!’ 모진 투정을 부리곤 했습니다.

그랬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간암으로 3개월도 못 사시고 너무 빨리 저의 곁을 떠나셨어요. 그때는 철이 너무 없었어요. 아프다는 핑계로 할머니 가슴에 못을 박았던 못난 손녀를 부디 하늘나라에서 환한 미소로 용서해 주세요.

매주 할머니 납골당에 가서 만나고 있지만 그 허전함은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

‘할머니, 정말 보고 싶어요.’

또 저희 가족의 시련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치매와 파킨슨

이라는 손님이 찾아온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입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의 무게를 지고 제 병수발까지 해내던 엄마는 이제 기억을 잃어가는 할아버지와 몸이 굳어가는 할머니를 보며 매일 마음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곁에서 함께 고생하는 이모의 초점 없는 눈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려요.

“하린아, 엄마는 괜찮아. 우리 딸만 건강하면 돼.”

엄마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알아요. 밤마다 할아버지의 엉뚱한 질문에 대답하며 안타까움에 조용히 흐느끼던 엄마의 등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 하나만으로도 벅찼을 텐데 부모님까지 저물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엄마의 생은 왜 이토록 모질까요?

제 등과 머리에 남은 수술 흉터가 저의 훈장이라면 엄마의 거친 손마디와 깊은 주름은 우리 가족을 지켜낸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의 기록’입니다.

제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제는 제가 엄마와 아빠 그리고 고모와 이모의 지친 어깨를 안아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여성시대 모든 분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6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우수상

큰오빠의 ‘희생’이라는 젊은 청춘

박영덕 | 광주광역시 동구 육판서길

과 연 우리 큰오빠는 자신, 박석점을 위해서 얼마나 살아봤을까? 5남매의 맏이로 태어난 우리 큰오빠! 오빠의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부모님, 형제자매뿐 아니라 조카들까지 언제부터 자리 잡았고 또 언제쯤 떨쳐낼 수 있을까?

큰오빠와 막둥이인 나는 무려 열네 살 차이가 난다. 집안 살림이 넉넉지 않아 오빠 학교 육성회비도 제때 못 내던 난감한 상황에서 동생이 또 태어나니 오빠는 참 막막했나 보다. 공부를 곧잘 했던 오빠였지만 중학교 졸업할 무렵, 엄마에게 말했다.

“나 고등학교 안 갈랑께 납부금 내지 마시요.”

엄마는 단호하게 말하는 오빠를 어찌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렇게 열일곱 어린 나이에 가족을 위해 돈을 벌러 타



지로 떠난 오빠는 그때부터 못 하는 운전이 없는 기술자가 되었다. 포크레인, 불도저, 대형 버스, 25톤 덤프트럭까지.

어릴 적에 변변한 인형 하나가 없어 베개를 포대기에 싸서 '아가'라며 놀던 막둥이가 안쓰러웠는지 어느 날 오빠는 사람 인형과 토끼 인형을 사와 나에게 선물해 주었다. 외딴집에 살던 내게 그 인형은 유일한 친구였고 솜뭉치가 터질 때마다 엄

마가 목 수술(?)을 시켜가며 고쳐주셨던 기억은 내가 죽을 날까지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이다.

하루는 산수 공부를 하고 있는데 큰오빠가 왔다.

“우리 막동이 공부하는구나? 열심히 해. 공부 잘하면 큰오빠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예쁜 옷도 사줄게.”

오빠는 나의 문제집을 들여다보며 “어! 막동아 이걸 틀렸네?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틀린 문제도 바로잡아주고 설명도 해주던 다정한 오빠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틀린 문제들이 많아지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야! 야! 그것이 아니라고. 어, 또 틀러봘네. 너 뭣하냐? 이것도 몰라야?”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목소리는 기어들어 가고 오빠의 얼굴은 별절게 달아오르고 목소리는 온 집안을 찌렁찌렁 울려 퍼졌다. 급기야 오빠는 작은오빠와 셋째 오빠에게까지 불호령을 내렸다.

“내가 집에 없응게 느그들이 갈쳐야제! 이것이 뭐다냐?”

가정 형편이 어려워 못 배운 한을 풀기라도 하듯 동생들 공부에 유독 예민했던 오빠. 어린 나이에든 쉽 없이 일해서 동생들 학비를 책임졌던 우리 큰오빠. 하지만 그런 마음을 헤아리기에는 너무 어렸던 내게 그날 이후 큰오빠는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타지에서 일하는 큰오빠를 위해 엄마는 매일 밥 한 그릇을 따뜻한 아랫목에 두곤 하셨다. 자주 오진 못해도 명절이면 빼먹지 않고 가족들 먹을 고기와 과자를 한 아름 사 들고 오

던 오빠였는데 어느 해 설날, 바빠서 못 온다는 연락이 왔다. 같이 일하러 간 동네 오빠는 집에 왔는데 우리 큰오빠만 못 온다니? 엄마는 느낌이 이상하다며 그 오빠 집을 찾아가 다시 물으셨고 오빠 친구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실은 큰오빠에게 사고가 났는데 엄마 아버지 걱정하실까 봐 말하지 말라 했다고. 너무 놀란 엄마는 울음을 터뜨리며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하셨다.

“우리 석점이 어쩔까? 얼마나 아플까?”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통곡하는 엄마를 아버지가 겨우 다독여 다음날 길을 나섰다. 외할머니께 우리를 맡기고 떠나는 순간까지도 엄마는 울고 계셨다.

병원은 광주에서 먼 부산이었다. 대형 화물차를 고대로 운전하던 오빠는 한 명이 운전할 때 다른 한 명은 뒷자리에서 쉬곤 했는데 사고 당시 오빠가 운전석 뒤에 있었다고 한다. 운전석 등받이가 뒤로 꺾일 정도의 큰 사고였다고 했다. 평소에는 머리를 운전석 쪽으로 두는데 그날만 오빠가 반대 방향으로 누워 있었다고 한다.

‘착하고 성실하게 산다고 하늘이 오빠를 살려주셨을까?’

평소처럼 누웠더라면 발뒤꿈치가 아니라 머리를 크게 다쳐서 우리들 곁을 영영 떠났을 뻔했으니 말이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병원에서 외로웠을까? 오빠를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이 아린다.

급한 마음에 준비도 없이 가셨던 부모님은 하루 뒤 집에 오셔서 발뒤꿈치가 깨지고 허벅지 뼈에 금이 가서 엉덩이까지

갑스한 오빠가 다른 환자들은 보호자들이 옆에서 병간호해 주고 있는데 혼자만 움직이지도 못하고 덩그러니 누워 있더라며 또 우셨다. 그래도 오빠는 젊은 덕에 회복이 빨랐다.

재활을 위해 병원을 오가며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아버지에게 사고가 났다. 아직 오빠의 치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오빠는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만 했다. 중환자실에 계셨던 아버지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 오빠는 가불까지 해서 병원비를 해결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쉬는 날 없이 일만 했다. 비어 있는 아버지의 자리까지 책임을 지느라 남들 쉬는 날까지 대타를 뛰며 근무했고 몸이 약한 엄마를 대신해서 생활비에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동생들 등록금까지 너무 버거웠을 것 같다.

성실하게 다니던 직장이 부도가 나면서 갑자기 오빠는 실업자가 되었다. 몇 개월의 월급과 퇴직금도 받지 못하게 됐을 때 무쇠 같던 오빠가 무너져 내렸다. 죽어버리겠다며 킁킁한 밤에 소리를 지르며 산에 올라갔고, 엄마는 “석점아! 석점아!”를 외치며 쫓아 올라가셨다. 정말 큰일이라도 날까 봐 너무 무서웠다.

다행히 오빠의 방향은 길지 않았다. 길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오빠는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다녔고 버스 운전을 시작했다. 오빠 회사가 집 근처라 그때부터는 다시 함께 살 수 있었다.

가장의 역할을 하느라 오빠는 결혼 적령기를 한참 넘겨버

렸다. 큰오빠를 제치고 동생들이 줄줄이 결혼해 떠나는 동안 예순이 넘은 큰오빠는 아흔 넘은 엄마를 책임지듯 함께 살고 있다. 오빠도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이 있었다면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을 텐데….

4명의 동생은 아들딸을 낳았고 오빠에게는 여덟 명의 조카가 생겼다. 젊은 시절 동생들을 위해 몸이 부서지라 일했던 오빠는 이제 조카들에게 수백수천 만 원을 학비에 쓰라며 내준다.

엄마 아빠인 우리가 있는데도 고생하는 동생들이 안쓰러워서 몸을 불살라가며 번 돈을 툭툭 내어놓는다. 쉬는 날 쉬지도 않고 다른 사원들 대타까지 뛰어가며 다들 꺼리는 통근 차량까지 운행하면서 쉼 없이 달리는 큰오빠. 오빠는 정작 본인을 위해서는 새것을 사본 적이 없다. 오빠가 안쓰러워 언니와 내가 옷이나 신발을 사주면 고스란히 다른 동생들이나 매제들에게 돌아와 있곤 한다.

차도 마찬가지다. 셋째 오빠가 오래 타서 폐차하려던 차를 유지비까지 쥐가며 오빠는 필요할 때만 이용하면 된다고 새차를 살 돈이 충분한데도 낡은 차를 고집한다.

부모님 눈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보상이 시작됐을 때도 오빠는 각자 사정으로 바쁜 동생들을 대신해서 일 처리를 도맡아 하더니 엄마와 본인 몫을 조금만 빼고 나머지는 동생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었다. 우리는 당연히 모두 큰오빠 몫이라 생각했는데도 그랬다.

오빠는 그 돈으로 다시 눈을 샀다. 동생들 밥은 굶기지 않

겠다며 소작을 맡겨서 해마다 수확한 쌀을 20kg씩 또 공평하게 배분해 준다. 덕분에 우린 매년 밥걱정 없이 산다. 이리 고도 더 도와줄게 없나 살피는 오빠. 내 남편이 버스 운전을 해보고 싶다니 학원비 100만 원에 회사 면접 팁까지 알려 주었다. 그걸 보고 나는 그랬다.

“오빠가 죄지었어? 우리도 얼마든지 학원비 정도는 있어. 제발 이런 돈 오빠를 위해서 쓰란 말이야.”

막둥이인 내가 손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동생들만 챙기려는 오빠를 보니 속상했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아프면 병원비까지 챙겨서 달려오는 사람이면서 정작 본인이 다쳐서 입원했을 때 동생들이 옆에서 부축하는 것도 한사코 거절했다. 손발을 다쳐서 식판 가져오는 것도 힘들면서 일하는 동생들이 힘들까 봐 교대로 병원에 가는 것도 화를 내면서까지 오지 못하게 했다.

오빠의 이런 희생으로 형제 중 누구 하나라도 크게 잘 풀렸으면 좋으련만 다들 형편이 그럭저럭이다. 마음이 아파 오빠에게 말했다.

“큰오빠 미안해. 오빠의 노력에도 누구 하나 잘된 동생들이 되지 못해서. 오빠 마음만 아프게 하는 존재들이 되어서 미안해...”

오빠는 그런 나를 다독이며 말했다.

“돈 그것이 뭐가 중요하대? 너희들 가정 깨지지 않고 엄마랑 내 곁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디. 잘 산다는 것이 뭐 있겠냐?”

과일을 사도 생선을 사도 한 짝씩 사는 오빠. 오빠 마음속에는 뭐를 사든 항상 동생들이 있나 보다. 축을 뜯어도 고사리를 꺾어도 고기를 사도 매번 동생들 넉넉하게 먹으라고 준비해서 연락한다. 그런 일이 워낙 많아서 귀찮다고 짜증도 부려도 동생들이 와서 먹으면 오빠 표정은 금세 밝아진다.

어릴 땐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워낙 눈도 크고 목소리도 커서 무서웠던 큰오빠가 이제는 50대인 나와 함께 익어가고 있다. 불호령을 내리던 목소리는 나긋해졌고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랑 상의도 해준다. 유해진 모습이 좋으면서도 오빠가 약해진 거 같아 마음이 아프다.

50년 넘는 세월을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며 살아온 우리 큰오빠에게 뭐를 해줘야 할까? 어떻게 해야 젊은 날의 청춘을 우리에게 다 바쳐버린 오빠에게 보상이 될까? 아버지보다 무섭던 오빠가 이제는 너무나 측은해 맘이 아려 온다.

큰오빠~

나의 큰오빠여서 너무 고마워.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함께 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이제는 동생들도 조카들도 마음에서 내려놓고 오빠도 오빠 자신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기만을 위한 시간, 습관을 조금씩 늘려가면 좋겠어요. 이제껏 오빠가 해준 것처럼 앞으로는 우리가 오빠를 응원하며 지지해 줄게요. 함께 맛있는 요리도 많이 만들어 먹고 꽃구경도 가고 더 늦기 전에 여행도 가보자고요. 막둥이는 이 나라의 대통령보다 우리 큰오빠를 더 많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2026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가작

나의 영웅 곽한길을 기억하며

오승현 |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앞둔 밤, 곧 중학교 3학년이 되는 딸아이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아빠 한 사람이 이렇게 보고 싶은데 아빠는 우리 가족이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을까?”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려 눈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기에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딸랑구’라 부르며 아껴주던 아빠의 부재 속에 딸에게 어느덧 세 번째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31일 그날은 내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칠혹 같은 어둠이 덮친 새벽, 소스라치며 깬 꿈속에서 검은 형체가 제 목을 훑고 사라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각. 사나운 꿈이라 여기며 곁에 자는 딸을 끌어안고 다시 눈을 붙였습니다.

아이들을 등교시킨 후에 남편과 일하던 후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연신 “형수님”만 부르더니 전화기 너머에 이내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생면부지의 타인을 돕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장이 멎고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이 그런 기분일까요. 내가 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마음 아프다던 내 사랑 한길 씨.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아빠가 ‘인생의 롤 모델’이라던 아들 재현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던 당신의 딸랑구 다운이. 우리 아빠가 세상을 떠난 것이 정말 맞느냐고 묻는 아이들의 눈에서 커다란 눈물방울이 쏟아지고 우리 셋은 처절하게 목 놓아 울었습니다.

병원에서 신원 확인을 기다리는 동안 대기실에 있는 TV에서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하던 40대 운전자가 숨졌다는 소식.

“어쩔 저럴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며 웅성거리는데 그 속에서 나는 가슴을 부여잡고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당신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CCTV를 통해 본 당신의 마지막은 필사적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 분기점 부근, 4.5톤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불길이 치솟는 현장. 다른 차들이 비상등을 켜



고 현장을 비껴갈 때 당신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사고 차량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조수석 문 위로 올라가 운전자를 밖으로 꺼내려 안간힘을 쓰던 당신! 1분 10초 남짓한 시간 동안 당신은 오직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뒤따라오던 16.5톤 화물차가 현장을 덮쳤고 당신은

끝내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습니다.

백 번을 넘게 생각해도 당신은 그 자리에서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늘 이웃에게 따뜻했고 선행에 앞장섰던 사람이라 당신 곁에는 당신을 닮은 정 많은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웃음만큼이나 가슴 따뜻했던 사람. 세상 어디서든 희로애락을 함께하자던 단단한 약속을 뒤로하고 떠난 그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났던 청춘처럼 느껴집니다.

언젠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다음에 아빠를 만났을 때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어떡할까?”

아이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무조건이지! 당연히 사람을 구해야지!”

아이들은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아빠라고 어디서든 가슴 활짝 펴고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리운 곱한길 씨!

우리는 당신을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펑펑하고 숨쉬기 힘든 이 세상에 당신처럼 빛나고 의로운 사람도 있었다고!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 정말 잘 살았습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내게는 빛나는 청춘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당신이 남긴 그리운 봄바람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반쪽 오승현

2026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가작

폐허를 지나 청춘의 집으로

애청자

저는 초등학교에서 이십 년째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청춘들 속에서 삽니다. 푸르른 아이들은 수많은 표정이 빼곡한 청춘의 페이지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저의 한 페이지를 나눠보고자 펜을 듭니다.

저는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에 합격하고도 지방의 어느 교육대학에 진학해야만 했습니다. IMF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었고 거액의 빚을 짊어진 아버지에게 서울로 보내달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실 당시의 저는 청춘의 꿈 따윈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어디를 가든 집을 떠나기만 하면 된다고요. 저는 오래도록 아버지에게서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저에게 유독 심한 욕

설과 매질을 가했습니다. 화가 나면 제게 있는 대로 모두 다 쏟아냈습니다. 팔과 다리에 푸르게 번져 가는 멍을 보며 ‘저 사람은 내 진짜 아버지가 아닐 거’라고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집을 떠나면 좀처럼 돌아오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와 어린 동생이 늘 마음에 걸렸지만요.

꿈꾸기보단 견디고 버텨던 제 청춘의 거처는 대학 시절 달동네의 작은 방 한 칸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아래로 간이역이 보였습니다. 기차가 들어왔다가 멀어질 때마다 이상하게도 지긋지긋하던 고향집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멀리 떠나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스물두 살 여름, 마지막 교생실습 사흘째 되던 날 낮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중학교 졸업 뒤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친구였습니다. 의용소방대원으로 복무하고 있던 그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했는데 거실에 걸린 가족사진을 보니 네 얼굴이 있더라. 집에 큰일 났어. 얼른 병원으로 가 봐. 어머니가 입원하셨어.”

실습지도 선생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저는 곧장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갔는지, 누가 어떤 표정으로 저를 맞았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 복도에 질게 밴 소독약 냄새와 울먹이던 동생 얼굴만은 너무도 선명합니다. 아버지는 바람을 피운 끝에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 이혼에 응한 어머니에게 흥기를 휘둘렀다고 했습니다. 집

은 피범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오래도록 무너져 있었습니다. 교생실습을 마치고도 대학을 졸업하고도 저는 쉽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우울과 죄책감 속에서 술과 약에 기대어 겨우 하루하루를 넘겼습니다. 밤이 되면 자취방 아래 간이역 불빛이 구슬프게 빛났습니다. 기차가 들어오고 선로가 울고 기적소리가 멀어질 때면 저도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싶었습니다. 몇 번이나 삶을 내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악착같이 버텨낸 건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낳아준 분이 아닙니다. 훗날 어머니는 소주 한잔하신 후 말씀하셨어요. 다섯 살인 저를 한 번 보았는데 돌아서고 나서도 그 얼굴이 자꾸 눈에 밟혔다고, 오로지 저를 키우기 위해 아버지와의 결혼을 결심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때 어머니 나이가 스물두 살이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고마운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스물두 살이 산산이 부서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제 앞가림도 버거운 나이에 남의 아이 손을 붙들고 어머니가 되기로 결심하는 일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 일인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폭력적인 남자와의 결혼을 감당하면서도 어린 저를 놓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행히 어머니는 긴 치료 끝에 조금씩 회복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퇴원 후에도 쉬지 못하고 공장으로 나가셨고 고등학

생이 된 동생의 뒷바라지를 이어 가셨습니다. 저도 기간제교사로 일하며 겨우 버텼습니다.

다시금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아침에 눈을 뜨는 일조차 버거웠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일터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휴일도 없이 매일 선박의 기름탱크를 청소하셨습니다. 기름탱크가 너무 크다 보니 까마득히 높은 곳에서 미끄러지는 동료도 종종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고로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그날은 회사에서 일을 못 하게 휴일을 준다고 했습니다. 어쩌다 하루 쉬면 어머니는 제게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나면 한참을 울었습니다.

파란 명보다 푸른, 너무나 퍼런 터널 같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랜 방황 끝에 결국 임용고사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미뤄둔 과제를 하듯 남들보다 한참 늦은 나이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다섯 살 어린 동료들과 한술밥 먹으면서 저는 점차 심신이 안정되어 갔습니다. 훈련은 고되었지만 청춘이라 그런지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실컷 땀을 흘리고 나면 몸도 마음도 싱그러워졌습니다. 바뀐 환경에 적응하느라 아픔도 절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자수했고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등병 백일 휴가를 나왔을 때 저는 대학생이 된 동생과 함께 교도소로 갔습니다. 창살 너머의 그는 전혀 반성 없는 얼굴로 태연하게 가족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한 동생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없이 맞

아서였는지 전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게 가능했습니다.

저는 군에서 모은 월급을 털어 영치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받은 상처는 여기서 끊어내겠다고. 당신의 아들이어도 당신처럼은 살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 당장 편안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면회를 다녀온 뒤 부대로 복귀한 저는 한동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래 굶은 상처를 도려낸 그 자리엔 명보다 더 시퍼런 공허가 들어찼습니다.

군대에선 ‘아버지 군번’과 ‘아들 군번’이 있습니다. 입대 1년 차이인 사이를 말합니다. 저보다 한참 어렸지만 아버지 군번인 제 선임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머리통이 하나 큰 그는 전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던 어느 날, 그와 우연히 단둘이 밥을 먹고 돌아오던 길에 그가 저 보고 ‘형’이라 부르며 담배를 권하며 전역 후 무엇을 하면 좋을지 제게 묻더군요. 저는 모처럼 선생님이 된 것처럼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제 이야기도 조금씩 꺼내 놓게 되었습니다. 교생실습 사흘째 걸려 온 전화, 응급실의 어머니, 교도소의 아버지 그리고 아직도 있는 제 안의 공허까지. 한참 말없이 듣던 그 친구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형! 한 번 사는 인생, 기왕이면 신나고 재밌게 가진 것 베풀면서 그리고 많이 어렵겠지만 용서하며 살았으면 좋겠

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 신나고 재미있게 베풀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푸른 피가 마구 돌았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진 못하겠지만 우울과 죄책감에 빠져 지낸 지난날의 나를 이젠 용서해 주고 싶어졌습니다. 막 스물두 살 전역을 앞둔 아버지 군번의 동생에게서 저는 청춘을 살아갈 귀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아이들과 읽은 수많은 동화는 ‘그 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다행히 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역 후 저는 어여쁜 선생님과 결혼했고 선물 같은 세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인자한 남편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셨고 동생은 트라우마를 딛고 저처럼 선생님이 되어 결혼해서 잘 삽니다.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며 삽니다.

돌아켜보면 청춘의 선택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독 쓰라리고 아픈 유년을 보낸지라 겁을 먹고 지쳐 보이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제 눈엔 더 잘 보입니다.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의 하루하루가 저에겐 가장 좋은 페이지입니다.

교실 문을 열면 아이들 뛰는 소리, 복도 끝에서 터지는 웃음소리, “선생님!”하고 부르는 아이들. 저는 오늘도 출근합니다. 영원히 푸른 청춘의 집, 학교로요.

2026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가작

가짜 수학여행

강대중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여 보, 청국장 다 끓었으니 어서 나와서 식사해요.”
아침 공기를 가르며 아내의 씩씩한 목소리에 잠이 깡니다. 거실로 나서니 집안 가득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포근하게 번져 있더군요. 오늘은 아내와 감자를 심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어제 해 질 녘까지 이랑 작업을 마쳐둔 터라 해가 머리 위로 올라와 더워지기 전에 서둘러 밭에 나가야 했지요.

작은 밭이지만 우리 부부가 먹을 만큼은 넉넉히 나는 소중한 땅입니다. 흙을 만지다 잠시 허리를 펴고 밭두렁에 서니 저 멀리 간이 정거장에서 삼삼오오 모인 학생들이 스쿨버스를 기다리더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십 리가 넘는 길을 매일 같이 먼지 폴폴 날리며 걸어 다녔는데 요즘은 집 앞까지 버스가 데리러 오니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웃

음소리를 듣고 있으니 40여 년 전 제 가슴 한구석에 트라우마처럼 깊게 박혀버린 기억이 울컥 차오릅니다.

저는 시골에서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연로하셨고 큰형님과 는 나이 차이가 워낙 커서 큰형님 친구의 아들이 저와 동갑일 정도였지요. 열여덟 살에 시집와 어린 시동생을 자식처럼 돌봐주던 큰형수님은 제게 또 다른 어머니였습니다.

“삼촌, 목욕하게요~”

저를 커다란 목간통에 넣고 흘랑 벗겨 구석구석 때를 밀어 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 시절 우리 집 형편은 늘 팍팍했습니다. 열 명이 넘는 식구가 한 지붕 아래 모여 살았고 집안의 생계는 공장에 다니시던 큰형님 한 분의 어깨에 거의 다 얹혀 있었습니다. 조카 다섯에 우리 형제 다섯, 입은 많고 형편은 빠듯했으니 살림은 언제나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수학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가고 싶어요”라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삶의 무게로 휘어 있던 형님의 어깨에 제 작은 소원 하나마저 짐이 될까 봐 겁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며칠 앞두고 담임선생님은 매일 들뜬 목소리로 설악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흔들바위가 얼마나 신기한지, 낙산사의 바다가 얼마나 푸른지, 버스 안에서 얼마나 즐거울지 말씀하실 때마다 교실은 들쭉였습니다. 친구들

은 어떤 옷을 입을지, 무슨 과자를 가져갈지, 버스에서 어떤 노래를 부를지 떠들며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한가운데서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육성회비조차 제때 내지 못해 자주 교무실에 불려가던 제계 수학여행은 애초에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기대에 부풀어 웃을수록 저는 애써 창밖만 바라보며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부러운 마음이 들키는 것조차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학여행 당일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형수님이 싸주신 도시락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학교로 가지 않았고 뒷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봄이 막 오던 때라 들꽃이 여기저기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뒷동산에 혼자 앉아 선생님이 나눠주신 일정표를 펴놓고 수학여행을 떠난 친구들을 상상할 뿐이었습니다.

‘지금쯤 버스를 탔겠지.’

‘지금쯤 웃고 떠들고 있겠지.’

‘이제는 설악산에 도착했겠지.’

상상할수록 어린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왜 나는 못 가는 걸까?’

결국 참지 못하고 하늘을 원망하며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죠. 그렇게 학교가 끝나는 시간까지 울고 있다가 눈물을 닦고 아무렇지 않은 척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은 태연하게 저를 맞아 주었죠.

둘째 날, 야속하게 비까지 내렸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다시 뒷동산에 올랐습니다. 큰 바위틈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형수님이 싸주신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도시락에 빗물이 스며들어 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차갑고 눅눅한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데 그 맛이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자꾸 입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나중에 어른이 되어 가정을 꾸리면 이번에 못한 여행지들을 우리 가족과 꼭 다시 다 가보리라’ 다짐했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양말만큼이나 제 마음도 무겁게 젖어 들던 오후였습니다.

그렇게 3박 4일의 가짜 수학여행이 끝나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집 마당에 들어서며 “저 다녀왔어요!”라고 소리쳤는데 아뽀싸, 마침 집에 놀러 오신 친구 어머니와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제게 그 아주머니는 “어머, 너는 수학여행 안 갔니?” 물으셨습니다. 순간 얼어붙은 적막이 흘렀습니다. 방 안에 있던 가족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누워 계시던 어머니와 눈이 마주친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붉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막내야, 말하지 그랬어. 엄마한테 말하지 그랬어…”

어머니는 마른 몸으로 저를 힘껏 안아주셨고 저는 참아왔던 서러움을 터뜨리며 어머니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뒤 누님에게 들었는데 그때 어머니는 암

투병 중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당신의 육체적 고통보다 막내아들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한 미안함에 오랫동안 괴로워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어머니와 함께 흘린 눈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후 저는 사회인이 되었고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신혼여행지를 정할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우리 설악산이랑 낙산사로 가자.”

아내는 여행지를 보더니 “어머, 꼭 고등학생 수학여행 코스 같네!” 그러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내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난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새신랑의 쓸데없는 자존심이었지요. 하지만 설악산 흔들바위 앞에서 아내의 손을 꼭 잡았을 때 제 가슴속에 맺혀 있던 40년 된 응어리가 조금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여성시대 사연을 통해 40년 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고 누구에게도 말해보지 못한 기억을 글로 적고 나니 가슴이 참 후련해집니다.

그런데 유난히 그 식은 도시락이, 저를 챙겨주시던 형수님의 손길이 그리고 야윈 몸으로 저를 꼭 안아주시던 어머니 품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사람은 오래 살수록 알게 되나 봅니다.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지낸 날이 아니라 가난하고 서러웠어도 누군가가 나를 뜨겁게 안아주던 순간이라는 것ですよ.

2026 여성시대 신춘편집소

입선

두 번째 프리포즈

천현정 | 전남 목포시 연산로

“**이** 단 내려와. 그리고 결혼하자.”
큰 당신은 서른넷, 나는 스물아홉. 그때 우린 무슨 배
 짱이었을까.

“오빠,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잖아. 같이 어떻게든 해보자.”

지금은 없어진 복숭아꽃 카페에서 식어 빠진 커피를 훌쩍
 훌쩍 마시며 나는 당신에게 그렇게 일장 연설을 했다. 무조건
 내려와 그냥 둘이 시작하자고.

그날은 전공 쪽지 시험이 있었다. 시험공부는 안 하고 왜 그
 리 시끄럽게 떠드냐며 처음 본 복학생 선배는 교탁 위에 천하
 대장군처럼 우뚝 서서 버럭버럭 화내며 훈계했다. 그날 이후
 법학과 여자 동기들은 끈대 같은 당신을 싫어했는데 이상하

게도 나는 당신이 싫지 않았다. 그래서였을까. 국제법 리포트를 발표하는 나를 보고 반해서 나와 결혼하는 게 인생 최대 목표였던 당신의 담대한 포부를 알 길 없는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4학년 봄 학기였고 나는 당신과 사귀고 있었다.

가난한 고학생의 테이트란 고작 자판기 코코아 두 잔에 2번 시내버스를 타고 대반동 바닷가나 유달산 등산로를 헤어지기 싫어 몇 시간이고 걷는 게 전부였지만 우리는 그저 좋았다. 실컷 웃고 실컷 떠들고 실컷 행복했다.

하지만 현실 앞에 짠하고 애뜻한 연애는 어느새 봄꿈처럼 사라지고 졸업은 당신과 나를 천리만리로 갈라놓았다. 당신은 안산으로 올라가 수험 공부를 계속하고, 집이 어려웠던 나는 목포에 남아 직장에 다녀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6년간 장거리 연애를 했다.

“일단 내려와. 그리고 결혼하자.”

그리고 마침내 그날 여섯 달 만에 마주한 당신에게 나는 밀도 끝도 없이 말했다. 프리포즈였다. 내게 모은 돈이 조금 있으니 일단 집을 구하고 결혼하자 했다. 양가의 도움이 없어도 세상에 비빌 언덕 하나 없어도 그냥 시작해 보자고. 어린 아직 젊으니까 함께 헤쳐 나가자며 당신을 적당히 구슬렸다. 청춘 드라마 속 대사나 공익광고 카피 같은 촌스럽고 뻔한 말이었는데도 당신은 무작정 목포로 내려와 중소 건설사 외근직 말단으로 일자리를 구했고 이어 우리는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 날도 잡았다.

당신은 일찍이 해본 적 없던 일의 고됨도 잊고 나와 함께할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그때 ‘아~ 이제 정말 같이 살면 되겠네’ 하던 그때,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나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교통 사고를 당했다.

“오늘 밤을 못 넘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주세요.”

뇌출혈로 누워 있는 나를 보며 의사는 그렇게도 무서운 말을 했단다. 어찌저찌 일주일 만에 의식이 돌아와 부러진 턱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고 치아를 칭칭 감아 겨우 벌어지는 입안으로 미음만 먹던 내게 당신은 그날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의사가 마음 준비를 해라 했던 그날 우리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베개에서 내 내음이 나서 영영 울었다고.

“네가 평생 누워 지내도 그냥 네가 눈만 떠 준다면 그러면 평생 너의 옆에 있을 거라 다짐했어.”

사실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은 없지만 결혼을 앞두고 나는 몹시 두렵고 무서웠다.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시작해도 되는 걸까. 사랑도 결국 인간의 감정이라 언젠가 감정도 식을 건데 그때의 나는 후회하지 않을까. 당신이 나를 원망하고 내가 당신을 미워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러니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는 노래 가사처럼 지금 헤어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나 같은 건 뺑 차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야지. 나는 당신에게 괜히 센 척했지만 당신의 얼빠지고 모자란 그 바보 같은 고백은 현실 앞에 오들오들 떨던 내게 다시금 용기를 주었다. 결혼하지 뭐 까짓 그게 뭐라고.

시험 합격 기도는 빼 먹어도 나와 결혼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빼 먹은 적 없던 당신의 바람대로 물론 내가 장장 4개월이나 병원 신세를 진 후에야 장식 없이 얇은 링 반지 하나 달랑 끼고 우

리는 결혼했다.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기에 나는 사고 후유증에도 쉬지 않고 일했고 당신은 녹록하지 않은 건설 현장을 새벽이 고 밤이고 주말이고 공휴일이고 발로 뛰었다. 둘이 처음으로 장만한 경차는 비가 오면 천장이 곧 무너질 듯했고 코너를 돌 때면 온몸으로 같이 돌아야 했지만 우리는 행복했다. 곰팡이가 피는 집이라도 둘이라서 참 좋았다. 평생 변변한 여행 한번 못 가신 시부모님께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리고 친정 아빠 보청기와 틀니를 해드렸을 때는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찼다.

“두고 봐. 분명 합격할 거야.”

나는 또다시 무슨 배짱이었는지 가족들, 친척들, 심지어 당신까지 다른 길을 준비하라고 시동생을 설득하려던 그 시기에 의대 간다는 시동생을 도왔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시동생의 학원비며 용돈을 챙겼다. 될 것 같았다. 아니, 되지 않는다고 해도 도와주고 싶었다. 마음껏 공부해 보지 못한 당신이 나처럼 시동생이 목전의 현실에 꿈을 접고 포기라는 값싼 타협 속에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감사하게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첫째를 가진 그해 착실하고 똑똑한 시동생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 합격하면 ‘그 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의대 학비는 왜 그리 비싼지, 4년간 일한 당신의 퇴직금을 털어 첫 학비를 대준 후에도 나는 두 아들을 낳고 출산휴가 3개월만 쉬며 일해서 학비를 보탤다.

없는 살림에 친정 돌보랴, 시댁 돌보랴, 15년을 일하면서도

나는 그 흔한 명품 가방, 명품 옷 한 벌 없이 당신도 나도 우리 아이들도 친구나 지인이 물려준 옷을 입으며 항상 마이너스로 살았다.

당신이 마흔 중반이 될 때까지 그리고 내가 마흔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어둠은 깊었다. 늘 사나운 폭풍우가 휘몰아쳤다. 서로를 의지해 때론 혼자서 누구도 무엇도 없는 끝도 없이 이어지는 광야를 지나야만 했다. 나는 천사, 성인군자도 아니었기에 날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똑같이 허덕이는 삶은 내게 우울증과 번아웃까지 안겨주었다. 시동생 도와봤자 남이랴 돌아오는 거 없다며 더는 기대하지 말고 아이들과 네 인생이 나 건사하라는 충고라는 이름의 비아냥도 들었다.

그래서 둘째를 가진 그해부터는 마음 둘 곳이 없어 하염없이 걷는 날이 많았다. 그리고 마흔에 어렵사리 낳은 둘째가 세 살 되던 그해 갑작스레 쓰러진 친정 아빠가 만성콩팥병 진단을 받으셨고 이미 같은 병이셨던 친정엄마는 일주일째 3번 신장 투석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나는 딸이었기에, 엄마였기에, 아내였기에, 며느리였기에 악착같이 일하고 주변을 건사하며 버텼다.

하지만 작년 봄, 가벼운 치매까지 온 친정엄마가 고관절 골절로 입원한 지 5일 만에 패혈증으로 돌아가셨을 때는 나는 지독히 절망했고 내 모든 십자가를 내 모든 멍에를 던져버리고 싶었다. 실은 더는 깨어나고 싶지 않았다. 삶은 왜 이리도 매정하고 고된가. 아니, 그보다도 왜 내게만 이리도 모진가.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지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미친 듯이 화가

났다. 마지막 인사 건넬 새 없이 갑자기 찾아온 엄마와의 이별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어딘가에 악다구니질이라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소리 내지 못해 버석버석 마른 가슴만 하릴없이 쿵쿵 치고 또 치는 밤이 이어지고 또 이어졌다.

“괜찮아. 헌정아, 괜찮아.”

그리고 그 막다른 골목의 밤마다 나를 다독이는 당신이 있었다. 내세울 만한 재력도 힘도 없지만 돌아보면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보는 당신이, 벽에 걸린 달력 같은 당신이 내가 뜯지 않으면 그대로인 달력처럼 그 자리에 항상 있었다. 그 건 내 삶의 작은 위안이자 격려였으며 가느다란 숨통이었다. 조금만 더 살아볼까, 나는 그렇게 마음을 돌렸다.

시나브로 시간은 흘러갔다. 그리고 마치 거짓말처럼 아니비가 그친 후 언제 그랬냐는 듯 파란 하늘 위에 말갭게 뜨는 무지개처럼 마치 어제까지도 절대로 꺾지 않을 것 같던 봄꽃이 눈 깜짝할 새 활짝 만개하듯이 마침내 그날은 왔다. 우리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성실히 병원을 개원한 시동생은 의사 3명에 간호사 9명을 둔 원장이 되었고, 이제 마흔여덟 당신은 설레는 마음으로 그 치과에 출근한다.

마흔셋이 된 나는 여전히 명품 하나 없고 혼수로 산 14년 된 TV가 10분에 한 번씩 먹통이 되지만 괜찮다. 나는 잘했다고 믿는다. 얼마나 기특한가. 사랑 하나 믿고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우리는 사랑을 믿었고 사랑에 투자했으며 변명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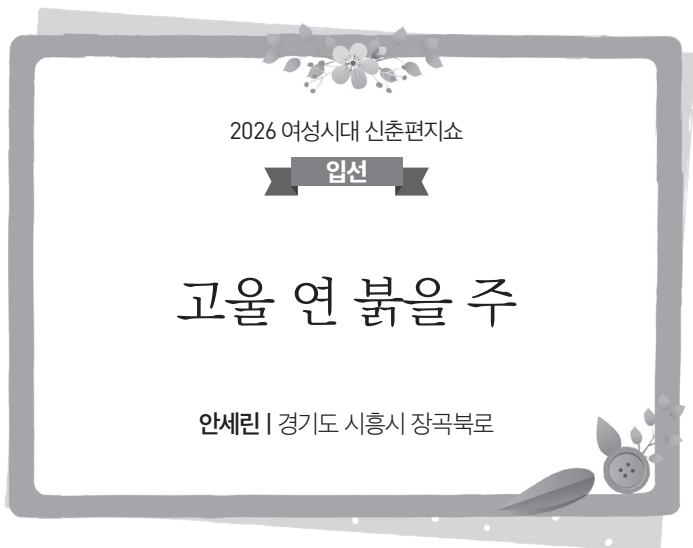
도 않고 도망치지 않고 세상과 싸웠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으로 돌려받았다. 사랑하니까 헤어지지 않았다. 사랑하니까 같은 편을 먹고 세상과 싸우기로 했다. 무모했지만 진실했다. 고단했지만 행복했다. 물론 이번 생은 이미 글렀으니 이대로 살고 천국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절대 만나지는 말자 투덜투덜하는 나지만, 내 성격이 강한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강한 줄은 몰랐다면 옛그제도 오늘도 꿀얼꿀얼하는 당신이지만, 사실은 당신도 나도 안다. 이 모두가 빈말임을. 천국에서 어쩌면 다음 생에서도 나는 당신을 만날 것이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말 거라는 걸 당신도 나도 안다.

아무것도 없이 결혼하는 우릴 보시며 김 수녀님이 그러셨다. 바보는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둘이 다 바보니까 괜찮을 거라고. 우리 둘 다 바보라서 우리는 정말로 괜찮았고 정말로 괜찮다. 서로가 있어서 정말로 괜찮다.

누가 내게 청춘이 무어냐 묻는다면 나는 말하리라. 우리는 서로에게 청춘이었노라고. 그리고 지금처럼 당신과 나라면 인생의 쇠락 앞에서도 우리는 계속 청춘일 거라고.

홍영삼 씨!

나랑 8년이나 연애하고 14년 동안 같이 살아주어 고마워요. 앞으로도 아웅다웅 투닥거리며 달콤살벌하게 백 년이고 천 년이고 같이 삽시다! 이게 내 두 번째 프러포즈예요. 처음처럼 끝까지 함께합시다. 많이많이 사랑합니다. 그때도 지금도 하나뿐인 내 당신, 내 청춘 홍영삼 씨!



“나 한테 아이들 맡기고 올케 너는 다시 시작하라고 너희 엄마한테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몰라. 근데 끝까지 ‘형님, 제 아이들이니까 제가 키울 거예요. 제가 키울 수 있어요’라고 하더구나.”

고모가 말을 이어서 하셨다.

“그때 다른 올케들은 너희들 맡게 될까 봐 지레 겁을 먹기도 했었지.”

내 나이 서른두 살에 처음 듣는 이야기에 귀가 번쩍 뜨이고 심장이 뛰었다.

“아빠 보러 가자.”

그날따라 웃음기도 없고 낯선 모습이었던 큰아빠의 손을

잡고 따라간 곳은 아빠의 장례식장이었다. 나는 여덟 살, 남 동생은 고작 막 두 돌을 지났을 때였다. 장례식이 뭔지 아직 잘 몰랐던 나는 아빠는 어디 가고 아빠의 사진이 왜 꽃들 가운데 있는지, 엄마는 왜 울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투성이었지만 그저 엄마가 우니 알 수 없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엄마 울지마~” 하며 엄마와 부둥켜안고 울었던 기억이 난다.

그때 간암으로 돌아가신 아빠의 나이는 서른아홉, 엄마 나이는 서른하나. 나와 동생은 아빠의 투병 생활 동안 큰집과 이웃집을 전전하다가 자식이 없던 큰고모가 우리를 맡아 키워주셨다. 아빠의 생명력이 다해가는 것을 느끼셨을 고모는 아직 창창하고 예쁜 우리 엄마에게 자식들 걱정은 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고, 내가 애들은 잘 키워주겠다고 같은 안 써 못 키우겠냐며 엄마에게 몇 번이고 새출발할 것을 권하셨다고 하셨다. 그때마다 엄마는 아니라고 내 아이들 내가 키울 수 있다고 몇 번을 거절했더라.

막 성인이 되어 서점에서 알바를 하다가 서점 사장님이었던 아빠를 만나 결혼한 엄마는 제대로 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엄마가 아빠를 떠나보내고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 가장이 되었다. 마트일, 부업, 식당일,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치는 대로 일을 하시기 시작했다. 고된 하루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 끄끙 앓는 엄마를 보며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나는 ‘엄마도 아빠처럼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공포가 있었던 것 같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다짐은 일기장에 ‘내가 공장에 다

너서라도 동생을 먹여 살리겠다'고 적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 하면 맹랑하기 짝이 없어 웃음이 나지만 당시의 나는 내 동생을 끝까지 책임져야겠다는 제법 비장한 누나였다.

“엄마, 간호조무사 공부할 거야?”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동생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의 갑작스러운 선언이었다. 더 나이가 들면 안정적인 일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그렇게 엄마는 낮에는 병원 알바를 밤에는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만학도 아닌 만학도가 되었다. 그래도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엄마에게 활력이 되었는지 밤늦어서야 집에 오는 엄마는 무척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반짝이셨던 것이 기억난다.

“동생이 응급실에 실려 갔어. 학교 마치고 병원으로 와.”

전화 한 통을 받고 하교 후 급하게 대학병원으로 갔다. 사건은 이랬다. 동생이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에서 야구를 하다가 야구공에 눈을 맞았는데 눈 안쪽 뼈와 코가 부러졌다는 것이었다. 수술해야 한다는 말에 엄마는 몇 날 며칠을 병원에 있으면서 심란해하셨다. 그 주에는 간호조무사 시험 결과 발표도 있었다. 심란해하면서도 엄마는 “웬지 엄마는 합격했을 것 같아. 엄마 정말 열심히 했거든”라고 했다.

그리고 들려온 “딸! 엄마 합격했어!” 내가 처음으로 본 엄마의 삶에서 환하게 빛나던 순간이었다. 아마 엄마에게는 단순 자격증 합격이 아니라 ‘내 아이들을 지켜낼 힘이 나에게도



있더라는 훈장이었으라 짐작해 본다.

엄마는 그 후 10년간 동네 한의원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하셨다.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셨는지 엄마가 한의원을 그만둔다고 말씀드릴 때마다 원장님은 “실장님, 환자들이 실장님 안 계시는 날은 실장님만 찾는데 실장님 없으면 우리 병원 망합니다” 그러며 한사코 퇴짜를 놓으셨더라.

엄마는 그렇게 알코올 솜에 손이 부르들 때까지 일하며 돈을 모아 서른 살 된 딸을 시집보내셨다. 결혼을 앞두고 신부 입장을 고민할 때 시아버님은 엄마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다.

“사돈, 이번 결혼식 때 사돈께서 직접 며느리 손잡고 들어가시지요.”

그 제안에 엄마는 손사래를 쳤다.

“어휴 남 보기에 좋지 않아서 저는 제 딸 손잡고 못 들어가요.”

하지만 고등학생 때부터 우리 가족의 사정을 지켜봐 오셨던 시아버님은 단호하셨다.

“사돈이 그동안 고생해서 딸을 이렇게 예쁘고 바르게 키워놓으셨는데 사돈 손이 아니면 누가 우리 며느리 손을 잡고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 영광은 오롯이 사돈의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 나는 아빠의 손 대신 엄마의 손을 잡고 들어갔다. 떨리는 내 손을 엄마는 꼭 잡아주셨고 그렇게 우리 모녀는 서로의 얼굴을 차마 보지도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걸었다. 엄마의 삶을 알고 지켜봐 온 사람들은 눈물을 참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현재 출산을 두 달 앞둔 예비 엄마가 되어 있다.

“힘들어서 어째. 엄마는 너 가졌을 때 집에만 있었어. 애 가져서 집안일하랴 직장 다니랴 우리 딸 힘들어서 어째…”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는 뱃속에 아가보다 내가 더 걱정이다. 입덧으로 힘들어하고 막달까지 직장에 다

녀야 하는 내가 안쓰러운 엄마는 저녁마다 집으로 불러 저녁을 먹이신다. 시장에 좋아 보이는 과일이 있으면 아낌없이 사서 주신다. 매일 뭐가 먹고 싶냐고 전화를 주신다. 다 큰 딸을 아직도 아플세라 힘들세라 먹이고 키우고 계신 우리 엄마.

배가 불러올수록 산달이 되어갈수록 나는 엄마의 서른하 나를 생각한다. 나는 아직도 엄마 품을 찾는 아기 같은데 엄마 없이는 불안한데 엄마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우리 둘을 키울 용기가 생겼을까. 친정엄마도 없이.

엄마는 가끔 말한다.

“엄마는 꽃다발은 싫어. 꽃다발 받을 땐 정말 예쁘지만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게 꼭 엄마 같아서.”

엄마의 이름은 고을 연(妍)에 붉을 주(朱)를 쓴다.

이름처럼 여전히 고운 우리 엄마 연주 씨!

엄마는 엄마의 청춘이 다 시들어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마는 금방 시드는 꺾인 꽃이 아니었어. 엄마는 매번 매섭게 차갑고 시린 겨울 속에서도 기어코 붉은 꽃망울을 터뜨리며 피어나는 동백나무였어. 그 곁에서 자란 나도 이제는 필 줄도 알고 질 줄도 아는 그러나 다시 꽃을 피워낼 줄 아는 나무가 되었어. 엄마의 삶을 본받아 나도 이제 태어날 우리 포이에게 한겨울 속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엄마가 될게.

단 한번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산 나의 고운 연주 씨. 내 삶에 엄마만큼 곱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 늘 고맙고 정말 사랑해.

2026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입선

나의 청춘에게

서진희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바다가 보고 싶어 퇴근길에 무작정 버스를 탔다. 가슴이 답답할 때 충동적으로 바다를 찾기 시작한 건 중학생 때부터였다.

해운대 모래사장 위에 앉아 어둑어둑해지는 하늘 그리고 밤을 닳아가는 바다를 바라본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긴 한숨이 흘러나오면서 ‘하... 나도 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으면...’ 하고 마음이 요동친다. 힘들 때마다 찾은 바다는 늘 내게 위로를 줬건만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

“그냥 확 뛰어들어! 왜 사니? 힘들게 왜 살아?”

“아니야. 그래도 살아야지. 힘들어도 살아야지!”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휘몰아친다. 살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마음. 내 나이 스물셋, 청춘

은 파릇파릇하고 생기 있는 모습이어야 하건만 삶이 그렇지 못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은 빈곤의 연속이었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돈을 벌어야 했던 엄마. 그리고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제대로 사지 못했던 내 어린 시절. 내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세 자매 모두 열아홉에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집안은 빠르게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비록 대출을 끼긴 했지만 지긋지긋한 월세를 벗어나 ‘우리 집’을 장만할 수 있었다. 드디어 집을 사다니 온 세상을 가진 듯 기뻐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가 끝나갈 때쯤 담임선생님께서 나를 따로 불러내셨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내게 “너, 졸업하면 취업할 거라고 했지?” 선생님께선 좋은 자리가 있다며 나를 추천해 주겠다고 하셨다.

“진희가 늘 성실하고 모범적이라 추천한 거야. 가서도 열심히 해. 알았지?”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 하루하루 걱정이었다. 지난달에도 대기업에서 생산직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기에 서류를 넣었건만 다른 친구들은 붙고 나만 보기 좋게 떨어진 탓에 입술이 바짝 말라가던 차 다행히 좋은 기회가 생겼다.

선생님이 연결해 준 곳은 대학병원 근처에 있는 작은 약국이었다. 약사의 업무를 돕는 보조사로 일하는 거라 했다. 원래는 약에 관심도 없고 전문 지식도 없었지만 사회로 진출

한다는 설렘과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겠다는 자신감으로 내 인생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약국에는 나를 포함해 총 일곱 명의 직원이 있었다. 그들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취업한 나를 어린 막냇동생 대하듯 잘 챙겨주었다. 그렇게 7개월 동안 열심히 약 이름을 외우고 약사님을 도와 약 조제도 함께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를 유심히 보시던 약국장님께서 나를 조용히 불러내셨다.

“진희, 눈 검사 한번 해봐라.”

사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 예상했다. 약시였던 나는 다섯 살 때부터 일명 ‘잡자리 안경’이라 불리는 두꺼운 안경을 쓰고 다녔다. 학교생활엔 문제가 없었다. 그저 안경을 벗으면 바로 앞에 있는 사물도 분간 못 할 정도로 시력이 나빴을 뿐이다. 하지만 점점 커갈수록 렌즈를 맞추는 정도로는 급속하게 떨어지는 시력을 교정할 수 없었다.

결국 약국장님의 권유로 근처 대학병원에서 시력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시력이 점점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의사의 소견과 함께 하루아침에 퇴사를 통보받았다. 마지막으로 모든 짐을 챙겨 약국을 나오는 길에 사람들이 보든 말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인생 첫 직장에서 이렇게 잘린다니. 그때 내 나이가 고작 스무 살이었다.

몇 날 며칠을 울면서 보냈다. 하지만 슬픔에 빠져있는 것도 사치였다. 일을 그만둔 지 2주일이 되어가자 우리 집 형편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힘들게 세 자매를 키우시는 엄마를 보니 얼른 힘을 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그래, 고작 스무 살에 직장에서 잘렸다고 내 인생이 끝난 건 아니잖아? 일은 까짓것 또 구하면 되지!’

그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졌고 경찰서 매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공고에 곧바로 면접을 보면서 바로 그 주에 첫 출근을 했다.

이번에는 절대로 잘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정말 열심히 일했다. 매점은 기본으로 챙기면서 바쁠 때는 구내식당 이모들을 도왔고 틈틈이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커피 배달까지 나갔다. 심할 때는 구내식당에서 설거지까지 해야 했는데 스무 살이었던 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채 하루에도 몇백 개씩 나오는 식판을 닦아 내는 일보다 더 힘들었던 건 바로 내 자존심이었다.

내 또래의 전경, 의경 오빠들을 보면서 스스로가 창피하게 느껴졌다. 20대 초반밖에 안 됐으면서 왜 나이 많은 사람이 할 법한 일을 하고 있냐고 좋은 직장을 소개해 주겠다는 어른들의 말에 흔들리기도 했다.

“진희는 아직 어린데 이런 일을 왜 해? 공부를 더 해서 좋은 직장 가야지.”

하지만 첫 직장에서의 아픔이 이를 악물게 했다. 일할 땐 자존심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귀를 막았다. 사실 이런 시력으로 다른 곳에 간들 거기서 잘리지 않고 끝까지 버텨낼 자신이 없었다. 특히 서류를 본다거나 컴퓨터 작업을 해야 하는 일이라면 더더욱 내 시력으로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었기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



로 했다. 출근 시간은 아침 9시지만 나는 7시에 미리 도착해 매점을 정리하고 청소를 했다. 담배를 채워 넣으면서 가까이 눈을 대고 담배에 적힌 글자를 하나하나 외워냈고 빵과 음료 수도 그 자리 그대로 가격을 순서대로 암기했다. 항상 긴장한 상태로 혹시 누가 내 눈이 나쁘다고 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마음을 조렸다.

그날 처리해야 할 업무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모든 물건의 위치와 모든 글씨의 내용을 다 외워버리는 것. 앞이 잘 안 보인다라는 건 그만큼 괴로운 일이었고 그만큼 더한 노력이 필요

한 일이었다. 그래서일까? 너무 몸을 혹사했던 건지 어느 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란 병을 얻게 되었다. 그때 내 나이 스물두 살이었다.

몸이 아파도 일을 그만둘 순 없었다.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겨우 퇴근길 지하철에서 눈을 붙이면 하차 역을 놓치고 종점까지 가기 일쑤였다. 일도 힘든데 월급은 또 쥐꼬리만큼 적었다. 하지만 내가 이곳이 아니면 어디를 가겠는가? 이 직장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텼건만 이듬해 점점 떨어지는 시력이 심상치 않았다. 결국 지인 소개로 받은 상담에서 대학병원에 가보라는 말에 정밀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망막색소변성증'. 점점 시력이 떨어지다 결국 실명이 된다는 유전병이었다.

어릴 때부터 눈이 불편했지만 나중에 라식·라섹을 하면 좋아질 줄 알았다. 내 시력이 병이라고 생각한 적 없었다. 그런데 내 발목을 잡던 것이 유전병이라니. 그것도 실명이 되는 무서운 병이라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구치는 듯했다. 말 그대로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병원 진단 후 아무리 힘들어도 일터에서만만큼은 일명 '하이디'라고 불릴 정도로 쾌활했던 내가 한 달 내내 남들 몰래 숨죽여 울고 다녔다. 통통 부어 있는 얼굴을 보면서 주변 식당이모들도 전경 의경 오빠들도 경찰 부장님들도 무슨 일이라고 물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그런 병에 걸렸다고 하면 아니, 시력이 점점 떨어져 언젠가 실명이 된다고 말하면 이 일도 그만둬야 할 텐데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 터놓고

말할 상대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찾은 곳이 바다였다.

‘이렇게 살면 뭐 해.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실명이라니, 앞이 안 보이면 어떻게 살아? 무섭다, 그저 무서워. 정말 이런 내가 싫다.’

울고 또 울었다. 내가 불쌍해서 너무도 가여워서 묵혀두었던 댐이 폭발한 것처럼 씹 없이 흘러나오는 눈물에 더 크게 목 놓아 흐느꼈다. 얼마나 울었을까. 한참을 흘려보내고 나니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어 갔다. 살고 싶지 않다던 마음이 다시금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돌아섰다. 이렇게는 무너질 수 없다. 내 나이 스물셋. 아직 인생이 끝난 게 아니다. 눈? 실명? 아직은 아니지 않는가? 보일 때까지만이라도 아니,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도 이렇게나 불쌍한 내 인생 꼭 행복하게 만들리라.

다시금 각오를 다지고 모래를 털고 일어났다. 그렇게 다시 하루가 시작되었다. 힘든 건 어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한 열심히 일하자며 나 자신을 위로했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매점에서 일한 지 5년째 되는 날 나는 내 인생 두 번째 직장에 종지부를 찍었다. 2006년 2월 시각장애 등급 3급을 받고 시각장애인이 다니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아이고, 여태껏 왜 말 안 했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불쌍한 것. 많이 힘들었지?”

직장을 그만두기 전 나를 늘 딸처럼 대해주셨던 식당 이모

들에게 여태껏 말하지 못한 나의 병을 털어놓으면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모들은 나를 꼭 안아 주며 함께 울어주셨다.

“진희야, 가서도 잘살아. 응원할게.”

이모들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뒤로한 채 경찰서 매점 문을 나섰다. 후련함과 섭섭함이 동시에 몰려왔다. 그래도 첫 번째 직장에서 쫓기듯 나오느라 평평 울었던 것과 달리 두 번째 직장은 미련 없이 웃으면서 그만둘 수 있어 기뻐다.

스물다섯, 내 청춘의 새로운 삶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시원한 바다향이 코 끝에 훅 스친다. 10살 된 딸아이의 손을 잡고 바다향을 맡아 본다. 이제는 볼 수 없는 푸른 바다를 눈이 아닌 온몸으로 느낀다.

“엄마, 엄마는 바다 많이 와 봤어?”

딸아이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주억거리며 말했다.

“응. 엄마 아가씨 때 혼자서 많이 왔었지.”

“혼자서? 왜?”

“그게~ 음, 바다가 좋아서~”

“바다가 좋아서? 와~ 나도 바다가 좋아~”

아이는 까르르 웃으면서 모래사장으로 뛰어갔다. 조용히 눈을 감고 나의 20대를 떠올려본다. 스물세 살, 그 꽃다운 나이에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하고 힘들어만 했던 청춘을 이제야 마음으로 토닥토닥 안아주고 싶다. 잘살아왔다고 고생 많이 했다고 내 청춘아 고맙다고 그리고 넌 최고라고.

2026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입선

땡! 귀경길에 튄 사랑

박규희 | 충남 보령시 동대동

“아빠는 그때 진짜 초보 운전이었어. 요즘처럼 내비게이션도 없었거든.”

도로가 꽉 막힐 때면 아빠는 늘 같은 얘길 꺼낸다. 밖에는 이미 오후 햇살이 붉게 기울었지만 추석 귀경길은 여전히 정체가 심했고 도로 위엔 브레이크 등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던 엄마는 ‘또 시작됐구나~’ 하는 표정으로 콧바람을 내쉬며 피식 웃었다.

“그때만 해도 말이지, 추석이면 다들 본가 간다고 몰려서 뭘 귀경길이 아니라 거의 전쟁터였어. ‘귀경 전쟁’이라고 들어봤나? 지도 펼치고 길 한 번 잘못 들면 몇 시에 도착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냥 운명에 맡기는 거거든.”

물 한 모금을 마시고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그때 아빠는 대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본가는 인천이라 명절마다 영동 고속도로를 쪽 타고 올라왔었지.”

도로 위엔 차가 뺨뺨하게 늘어서 있는데 차선은 고작 두 줄. 앞뒤로 꽉 막힌 길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창밖을 기웃거렸다고 했다.

“라디오는 안테나를 아무리 세워도 잡음이 끼고 지도는 접었다 폈다 하다 보면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처럼 흰 줄이 갖는데 초보 운전이라 어깨에 힘은 또 얼마나 들어가던지.”

엄마도 질세라 얘기를 거들기 시작했다.

“그럼~ 그땐 지도 한 장 들고 다닐 때지. 그래도 나한테 그 때가 대목이었어.”

주차장을 방불케 하던 도로 한복판에서 주전부리를 파는 노점상들. 그 사이에는 빵튀기를 든 스무 살을 막 넘긴 엄마가 있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이 상상되지 않아서 “그걸 들고 고속도로에 나왔다고?” 하고 묻자 “새벽부터 나와서 비닐봉지에 담은 튀긴 강냉이랑 튀밥이랑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도 길 한 번 막히면 잘 팔렸거든~”

“그때는 다 그랬어. 차 멈추면 다들 창문 내리고 사 먹었잖아.”

“어휴 정신없었지. 창문은 많이들 내려놓고 기다리는데 봉지를 한 움큼 쥐고 차 사이사이로 다니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제~”

“그러다 네 엄마가 아빠 차 옆으로 지나가는 거야. 다들 체념하고 무표정으로 있는 그 순간에 네 엄마는 ‘강냉이 드

세요~ 마카로니 있어요.’ 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

엄마는 그때 웃는 게 습관이었다고 안 웃으면 장사를 망치니 별수 있냐고 했지만 “아니야~ 나한테 그 웃음은 달랐어.” 나는 이 대목이 늘 좋았다. 아빠의 말투가 유난히 부드러워지고 도로 위 그날의 바람 냄새가 아직도 남은 듯한 목소리. 엄마는 멧쩍었는지 다시 얘기를 이어갔다.

“창문을 조금 내리고 ‘천 원인데 한 봉지 드시면서 가세요~’ 했더니 네 아빠가 ‘맛 봐도 되나요?’ 그러는 거야. 그러시라 했지. 그랬더니 이 젊은 양반이 염치도 없이 처음엔 튀밥을 한 움큼 쥐고 입안에 옥여넣다가 이번엔 강냉이도 먹어본다 그리고 추석이니까 보름달 뽕튀기도 맛보겠다 그리고 아주 식사를 하더라고.”

“그때 진짜 배고팠어.”

엄마는 아랑곳하지않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엄마가 얼마나 난처했는지 아니? 시간 끌면서 이것저것 달라 그러는데 봉투는 종류별로 계속 풀어야지. 솔직히 뽕튀기가 거기서 거긴데도 자꾸 먹어보겠다고 우기는데 아휴~”

점점 격양되는 엄마의 말에 아빠는 허허 웃으며 말했다.

“하루 종일 막힌 길인데 멀리서부터 보이던 웃음이 눈앞에 있으니 계속 보고 싶더라고.”

“이 화상아~ 내가 그때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 뒤에선 계속 뽕뽕거리고 사람들은 내가 늦게 판다고 욕했을걸?”

뒷좌석에 앉은 나를 슬쩍 돌아보면서 “근데 웬걸, 네 아빠가 그걸 다 살 수 있냐는 거야. 엄마는 진짜 당황했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건 처음이었으니까. ‘내가 딱해서 적선 하러 그러나?’ 했더니까.”

“당신 그랬어? 별생각을 다 했네 그래.”

“거기서 네 아빠 생각보다 더 황당한 사람인 거 있지? 트럭에서 내 키만 한 봉지를 가지고 뒷좌석에 싣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도와주고 물끄러미 구경만 하더니만 갑자기 말을 걸더라고. ‘인천 가는데 같이 갈래요?’ 그래서 ‘어... 어... 어딜 가

자고요?’ 했더니 이 사람이 ‘인천이요. 바다도 보고 회도 한 점 먹고요’ 이러는 거야.”

아빠는 그때 엄마의 병쩍 얼굴이 생각나서 아직도 웃긴다고 했다.

“어머, 이 사람 제정신 아니구나 싶은데 나도 뭐에 홀린 것처럼 그래 내일 장사도 하기 싫고 바람 한 번 쏘자 싶어서 ‘내일까지는 데려다줘야 해요’ 하고 좀 튕기는 척 조수석에 탔어.”

“근데 네 엄마 타자마자 차가 조금씩 움직이는 거 있지? 다 엄마 보려고 줄 서 있었던 것처럼. 이뻐다니까~”

“이뻐다니까는 뭐야?”

엄마가 받아치자 아빠가 능청스럽게 말했다.

“지금도 예쁘세요 여사님~”

그 순간 뻥! 하고 동시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차 안에 쌓인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아빠는 잠시 창밖을 보다 말을 이어 붙였다.

“결국 그날 인천까지 갔지.”

“그래! 뒷좌석에 내가 실은 뽕튀기 다 실은 채로~”

“어색한 사이에 봉투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고맙던지.”

“아빠가 ‘상사들만 태우던 자리에 아가씨 태워서 좋다’고 해서 낮간지러운 와중에 잠은 본가에서 자도 된다고 하면서 순진한 내 혼을 쉴 새 없이 빼놓더라니까.”

“저녁쯤 집에 도착해서 다짜고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연

인이라고 못 박아 놓고, 순진한 네 엄마 그렇게 꼬셔서 빼도 박도 못하고 추석 내내 데이트했어.”

신나게 웃으며 얘기하는 두 분의 모습을 나는 뒷좌석에서 가만히 지켜봤다. 밖에서는 여전히 차들이 느릿하게 움직이고 그 틈으로 오래된 이야기 속 옛사랑이 다시 피어나는 것 같았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 하지.”

창밖을 보며 중얼거리는 엄마의 말에 아빠가 대답한다.

“전쟁 통에도 애는 태어난다잖아. 그날처럼 미어터지던 ‘귀경 전쟁’에는 사랑이 피어나는 거야.”

엄마는 닭살이 돋는지 팔을 한 번 쓸어내리면서도 귀에 걸린 입꼬리가 내려올 줄 몰랐다.

붉은 노을이 조금씩 져서 들 무렵, 나는 1990년대 어느 추석 귀경길 위의 젊은 둘을 상상했다. 뺨튀기처럼 한순간에 튀어오른 연애. 그 사이사이로 서툰 설렘이 뒤섞여 올라오던 그 날을. 그렇게 엄마와 아빠는 막히는 길 위에서 처음 눈을 맞췄고 몇 번의 명절을 함께 지나며 1995년 겨울 크리스마스이브에 영원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매년 돌아오는 귀경길에서 아빠는 같은 이야기를 풀어놓고 엄마는 같은 표정을 짓고 나는 같은 자리에 앉은 채 그날의 사랑 이야기를 다시 듣는다. 막힌 도로 위 그때 그 뺨튀기 봉지가 쌓여있던 자리에 이젠 내가 앉아 있다.

2026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입선

버텼던 시간의 이름 청춘

이상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나는 마흔다섯, 세 아이의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오래전부터 아이를 때리지 않겠다고 생일을 잊지 않겠다고 춤고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해 왔다.

어릴 적 나는 서울의 반지하 집에서 자랐다. 어느 날 먹다 남은 마른오징어를 싱크대 위에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을 때 오징어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가까이 가서 보니 오징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개미가 우글우글 오징어를 뒤덮고 있어서였다. 벽에는 개미들이 줄지어 기어다녔다. 개미 덕분에 바퀴벌레가 없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내가 두 살 때 아버지는 입대했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재봉틀 일을 시작하셨다. 단칸방 안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아가던 재봉틀 소리는 마치 기차가 방 안을 통과하는 듯 요란했지만 나는 그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잠을 잤다.

아버지가 제대한 뒤 지하에 작은 봉제 공장을 차리셨다. 그때부터 나의 놀이터는 공장이 되었고 나는 재봉 보조인 '시다'가 되어 쪽가위로 이음새를 자르고 천을 쌓는 일을 했다. 동네 할머니들이 함께 일하셨는데 나는 뒷짐을 지고 돌아다니며 틀린 부분을 지적했다고 한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동네에서 BB탄 총이 유행하던 시절 나 역시 그것이 갖고 싶었다. 생일날인 일요일 아침 TV에서는 '생일'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혼자 괜히 머쓱해졌다. 동네 골목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저만치서 어머니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친구들 앞에서 호기를 부리며 어머니께 달려갔다.

“엄마, 나 BB탄 총 갖고 싶어요!”

어머니는 잠깐 나를 보더니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는 갑자기 무슨 장난감 타령이야?”

생각지 못한 반응이었다. 순간 당황했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돌아서서 친구들에게 말했다.

“엄마가 지금 바쁘신가 봐.”

내 생일인데도 부모님은 저녁이 되도록 아무 말씀이 없었다. 마음이 점점 조급해졌다. 아버지께 말을 잘못 꺼냈다가는 눈앞이 번쩍하고 불이 부어오르곤 했다. 그래도 그날은 용기를 냈다.

“저… 오늘 제 생일인데요…”

그 순간 두 분의 손이 멈췄다.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불이 꺼진 시장 골목을 한참 헤매셨다. 문을 연 가게는 하나도 없었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서운하지 않았다. 혼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미안해하신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다음 날 나는 결국 BB탄 총을 손에 쥐었고 골목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뛰어다녔다. 내 기쁨 뒤에는 부모님의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나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

부모님의 첫 일터는 불로 사라졌고 어렵게 다시 시작한 공장마저 두 번의 홍수 끝에 무너졌다. 하지만 부모님은 다시 살아내셨다.

중학생 때 겨울방학에 용산전자상가에서 본 ‘휴대용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워크맨’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것을 사기 위해 나는 신문 배달을 시작했다. 새벽에 무작정 신문 배급소 지국장을 찾아갔다. 우락부락한 지국장은 왜소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다.

“너 할 수 있겠어? 힘들 텐데. 오토바이는 탈 줄 알아?”

“아니오. 자전거로 배달할게요. 저 할 수 있어요.”

“그래 해봐 그럼.”

자전거 뒷자리에 짐 묶는 끈을 단단히 묶고 신문 150부를 실었다. 그렇게 시작한 새벽 신문 배달.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신문을 싣고 언덕을 넘었다. 겨울 새벽 공기는 손이 얼어 신문을 잡지 못할 만큼 매서웠다. 유독 추운 날이면 빌라 계단

에 쭈그리고 앉아 손을 호호 불어 녹였다. 어느 날은 이유도 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한참 울다가 다시 일어나 자전거를 끌었다. 그렇게 번 첫 월급 15만 원. 나는 그 돈으로 워크맨을 샀다. 그 작은 기계 하나가 나를 버티게 했다.

날이 조금 풀린 어느 새벽에 신문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집 앞 골목에 어머니가 잠옷 차림으로 서서 울고 계셨다. 팔을 늘어뜨린 채 제자리에 서서 몸을 떨며 울음을 토해내고 계셨다. 나는 다가가 엄마를 불렀고 엄마는 나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토록 강했던 엄마가 무너지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나는 그날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그때부터였을까. 우리 집이 조용히 기울고 있었다. 아버지는 봉제 일을 그만두고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셨다. 하지만 IMF로 인해 어음은 한순간에 종잇조각이 되었고 우리 가족은 결국 갈라지게 되었다.

나는 고등학생 때부터 하숙 생활을 했다. 겨울은 늘 추웠고 여름은 숨이 막힐 듯 더웠다. 늘 배고팠고 먹고사는 일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말부터 일을 시작했고 입대 나흘 전까지 일하다가 논산 훈련소로 들어갔다. 아이러니하게도 군대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다.

제대 후 나는 다시 세상으로 나왔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일했다. 하루에 세 가지 일을 하는 날도 있었다. 아침에는 지하철 앞에서 무료 신문을 나눠주고 낮에는 빌라 계단을 쓸고 저녁에는 호프집에서 일했다.

그렇게 버티낸 시간 끝에 나는 한 사람을 만났다. 아르바이

트를 하던 한 여자아이. 지금의 내 아내. 여수에서 서울로 올라온 스물한 살의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다. 그때 내 나이 서른. 아내는 내 인생의 평안이었고 안식처였으며 처음으로 ‘괜찮다’고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다.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내 삶에도 색이 더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내 마음이 오래 곪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침이면 가슴이 짝 막힌 듯 숨이 쉬어지지 않았고 이유 없이 밀려오는 우울은 내 일상을 조금씩 무너뜨렸다. 몇 해째 약에 기대어 잠드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부모님께 묻고 싶어졌다. 어떤 마음으로 버티셨는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엄마, 좀 아픈 기억이긴 한데 그때 못 여쭙봐서요.”

“뭘데?”

“저 중학생 때 신문 배달하고 돌아온 새벽에 엄마가 밖에서 울고 계셨잖아요.”

어머니는 웃음을 지은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뭘 그런 걸 다 기억하고 그러니 너는….”

사실 나는 그때 엄마가 우는 모습을 누가 볼까 싶어 창피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 상황에서 엄마를 위로하지 못했던 것이다.

아버지께도 전화를 드렸다.

“아빠, 그때 공장에 불나고 홍수 나고 어떻게 버티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그때 우리 아들한테 너 무 못 해줬지. 일만 한다고…”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부모님은 방식이 달랐을 뿐 삶의 모든 청춘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셨다는 것을. 나는 그 청춘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이제 일곱 살이 된 막내 아이의 손을 잡으면 지난날이 생각난다. 이렇게 작은 손으로 어린 나는 공장에서 어떻게 시다 일을 했던 걸까.

둘째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생일 한 달 전부터 묻는다.

“아빠, 내 생일에 뭐 사줄 거야?”

그리고 작은 선물에도 아빠가 최고라며 환하게 웃는다. 중학교 2학년인 첫째는 오늘도 게임을 실킷 하다 잠들었다.

나는 오래전의 다짐을 다시 꺼내본다. 아이를 때리지 않겠다고 아이들의 생일을 잊지 않겠다고 춥고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한때 자신의 생일을 말하지 못하던 아이가 지금은 아이의 생일을 챙기는 아버지가 되었고 한때 재봉틀 소리에 잠들던 아이가 지금은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며 사랑을 건넨다.

그토록 치열했던 날들도 버려낸 오늘 하루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고요로 남는다. 오늘도 나는 잠든 아이들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며 조용히 나의 청춘을 살아간다.

2026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장려상

서른일곱의 내가 서른일곱의 당신에게

이도아 | 인천광역시 서구

내가 여덟 살 때 우리 가족은 인천 변두리 골목 끝 간판마저 빛바랜 구멍가게에 딸린 단칸방에 살았다. 사람들은 나를 골목 슈퍼집 딸이라 불렀다. 나는 라면 상자를 책상 삼아 숙제했고 과자 상자를 베개 삼아 잠이 들었다. 밤이 되면 낡은 형광등 아래로 날벌레가 모여들었고 엄마는 파리채를 들고 가게와 내 곁을 바쁘게 오갔다. 그 비좁은 공간이 엄마, 아빠 그리고 나, 우리 셋이 가진 세상의 전부였다.

아홉 살이 되던 해, 내 유년기의 기억은 조금 이른 불안과 함께 시작되었다. 정신이 아득해졌다가 문득 눈을 떴을 때 신경질적으로 울리는 자동차 경적이 귓가를 때렸다. 내가 왜 도로 위에서 있었는지 어떻게 그곳까지 갔는지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 어느 날은 찾길 한복판이었고 어느 날은 낮선 골목이

었다. 기억은 끊어진 필름처럼 번번이 잘려 나갔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된 끝에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통해서야 엄마는 내게 찾아온 이상을 눈치챘다.

어느 날 엄마는 365일 단 하루도 닫지 않던 슈퍼 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그리고 내 손을 꼭 쥐 채 서울행 지하철에 올랐다.

“엄마, 우리 어디 가?”

평소와 다른 엄마의 낯선 얼굴에 겁이 난 나는 몇 번이고 묻고 보았다. 엄마는 대답 대신 내 손을 더 세게 쥐었다. 여름도 아니었는데 엄마의 손바닥에는 축축하게 땀이 배어 있었다.

두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커다란 대학병원이었다. 무채색의 거대한 건물은 금방이라도 나를 집어삼킬 듯 입을 벌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본능적인 두려움에 문 앞에서 우뚝 멈춰 섰다. 안 들어가겠다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울며 떼를 썼다. 하지만 엄마는 나보다 더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을 거라고 나를 달래며 이끌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다. 낯선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풍경들 속에서 나는 세상이 떠나가라 울음을 터뜨렸다. 검사실 침대에 억지로 눕혀진 내 머리 위로는 덕지덕지 차가운 크림이 발렸고 오지 않는 잠을 억지로 청해야만 했다. 눈을 감으려 애쓸수록 불안은 더 또렷해졌고 나는 자꾸만 몸을 뒤척였다. 그때마다 간호사의 손이 나를 조심스레 그러나 단호하게 눌렀다. 또 다른 검사에서는 핑음

을 내는 좁은 기계통 속을 몇 번이나 들어갔다 나와야 했다. 둔탁한 소리가 뺏속까지 울렸고 좁은 공간은 숨이 막힐 듯 답답했다. 어린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무서움에 떨며 우는 것뿐이었다.

엄마는 그런 나를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색이 된 얼굴로 입술만 달싹이다가 주삿바늘에 혈관이 터져 빨렇게 부어오른 내 작은 손등을 겁먹은 사람처럼 조심스레 쓸어 내릴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병명이 떨어졌다.

뇌전증, 간질. 의사의 입에서 그 단어들이 나오는 순간 엄마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내 좁은 어깨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엉엉 울었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엄마를 따라 울었다. 엄마는 내 귓가에 끊임없이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술 취해 억지를 부리는 진상 손님의 주정에도 화 한 번 내지 않고 사람 좋은 웃음으로 달래 돌려보내던 엄마였다. 밤 늦게 무거운 상자를 나른 뒤에도 그저 깊은 한숨 한 번으로 버텨내던 엄마였다. 그런 엄마가 그날은 아이처럼 소리 내어 울었다. 우리 엄마가 울보가 되어버린 걸까. 처음 보는 엄마의 나약한 모습이 나는 걱정되고 또 무서웠다. 그래서 나는 더 깊이 엄마 품으로 파고들었다. 이 무서운 세상에서 나를 지켜 줄 단 한 사람에게로.

그러나 그날의 눈물 이후, 내 걱정과 달리 엄마는 보란 듯이 씩씩해졌다. 빠듯한 살림에도 비싼 병원비와 약값을 핑계로 주저앉지 않았다. 돈이 부족한 날이면 엄마는 낡은 수첩을 펼쳐 들고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기거이 나를 위해

모든 자존심과 부끄러움도 잊은 척하면서 한없이 낮아진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하고 미안하다, 꼭 갚겠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나는 그 옆에 웅크려 앉아 바닥의 타일 무늬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전화를 끊고 나면 엄마는 잠깐 고개를 푹 숙였다. 말없이 거친 숨을 고르듯 앉아 있다가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정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그리고는 나를 부서져라 꼭 안아주었다.

나는 매일 하루 세 번 내 목구멍보다 큰 알약들을 삼켜내야 했다. 억지로 넘기다 보면 목이 따끔거렸고 이내 참았던 울음이 터졌다. 어떤 날은 끝내 약을 삼키지 못하고 게워 내기도 했다.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면 애써 씩씩한 척하던 엄마의 눈에 어김없이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게 너무 싫었다. 내가 아픈 것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는 건 더 견딜 수 없었다. 그렇게 어느 순간 깨달았다. 내가 울면 엄마는 더 크게 더 아프게 운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울음을 삼키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열 살 여름, 6개월에 한 번씩 찾아오는 정기 검진 날이었다. 나는 검사실로 나를 들여보내는 엄마를 향해 먼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이제 열 살이니까 검사 잘 받고 올 수 있어. 나도 다 컸으니까 걱정하지 마.”

씩씩한 척 굴었지만 나는 여전히 병원 공기가 무서운 어린 아이였다. 그럼에도 나는 웃었다. 엄마가 더 이상 울지 않았으면 해서. 어찌면 그날 나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어른이 되어

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투병 5년 차에 접어든 열세 살 겨울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머니의 관을 향해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흙 한 삽을 퍼 넣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몰래 빌었다.

“할머니, 제발 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너무 속상해해요. 죄송해요.”

가시는 길엔 편안하고 좋은 말씀만 들려야 했는데 나는 끝내 내 간절한 소원을 빌고야 말았다. 어쩌면 할머니에게 무거운 마음의 짐을 안겨드린 건 아닐까, 뒤늦게 가슴이 저렸지만 그때의 나는 그만큼 간절했다.

그리고 이듬해 봄, 나는 기적처럼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 분명 지난번 검사까지만 해도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완치’라는 소식은 우리 가족에게 구원과도 같았다. 엄마는 또다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의사를 향해 우는 것도 웃는 것도 아닌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연신 감사하다고 되뇌었다. 그날 엄마가 흘린 눈물은 처음으로 맑고 밝았다. 마치 길고 길었던 장마가 끝난 뒤 조용히 번져오는 따스한 햇볕처럼.

그렇게 나는 엄마의 눈물을 먹고 자랐다. 불안으로 시작된 눈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 가슴 미어지는 간절함이 스민 눈물. 그리고 기쁨과 안도로 흘러내린 눈물까지. 나는 그 슬픈 눈물 속에서 자라났다.

아홉 살 딸의 병명을 처음 듣던 날 우리 엄마의 나이는 서른일곱이었다. 그리고 2026년 지금 내 나이가 꼭 그때의 엄



마와 같은 서른일곱이다. 그 시절 엄마의 나이에 닿고 보니 이제야 비로소 알 것 같다. 나는 그저 엄마의 눈물만 먹고 자란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내가 양분처럼 온전히 삼키고 자란 것은 엄마의 멈춰버린 시간이었고 눈부시게 빛나던 청춘이었으며 나를 향한 지독하고도 깊은 사랑이었다. 그 모든 것을 딛고서야 나는 비로소 어른이 될 수 있었다.

그때의 엄마는 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 작은 어깨를 부

등켜안고 무너져 내리던 그날.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안전한 품이었던 엄마도 실은 고작 서른일곱의 여린 여자였다. 아픈 제 어린 딸을 지켜내야만 했던 아직은 두려움이 더 많았을 그 나이. 엄마는 그날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어린 날 그렇게 들어가기 싫어 울며 버티던 그곳에서 나는 간호사가 되었다. 병실 한구석에서 보호자가 몰래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볼 때면 나는 어김없이 나의 젊은 엄마를 떠올린다. 자신보다 먼저 가족의 안위를 묻는 환자의 불안한 눈빛을 마주할 때면 그 속에 웅크린 어린 나 자신이 스며든다. 그래서 나는 그들 곁에 조금 더 오래 머무르곤 했다. 괜찮다고 다독여 주고 말없이 한 번 더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면서.

누군가는 ‘청춘’을 빛나는 계절이라 부른다. 하지만 나의 유년기와 우리 엄마의 청춘은 온통 축축한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안다. 그 눈물이 척박했던 나를 자라게 했다는 것을 그 눈물이 나를 누군가의 곁에 서서 아픔을 나누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엄마의 눈물을 먹고 자란 아이는 이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어른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아픈 이의 등 뒤에서 소리 없이 울음을 삼키는 보호자에게 조용히 마음의 위로를 건넨다.

“괜찮아요. 아주 잘 버티고 계세요.”

어쩌면 이 말은 오래전 아무도 없는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홀로 몰래 숨죽여 울고 있던 나의 엄마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단 한마디였는지도 모른다.

2026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장려상

말아라! 청춘

원향숙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내 나이 육십! 동네 작은 김밥집에서 5년 차 일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흔히들 김밥은 추억의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규모는 작아도 함께 일하는 이모들이 다섯 명이나 되는 김밥집에선 오전 오후로 나뉘어져 많은 이에게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육십칠 세의 '왕언니'를 비롯하여 마흔여섯의 경상도 애기엄마 '자야'와 함께 셋이서 오전 팀을 맡아 일하고 있지요. 일 때문에 엮인 인연이지만 2년에서 4~5년 차 사이를 두고 우리는 팀워크와 끈끈한 동료애를 무장하여 늦깎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간간이 왕언니는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내가 이 재미난 일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잉? 돈 버는 재미도 쏠쏠 좋은 사람과 일하는 재미도 쏠쏠한데 말이야. 진즉에 시작 못 한 게 한이로구만~”

“어머! 언니도 그래요? 나는 5년이나 되어 가는데 이 자리에서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나는 아직도 이 자유로운 현실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내 나이 스물여섯에 신부 친구 신랑 친구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신혼의 단꿈을 꾸어 보기도 전에 시어머님을 모시고 시작된 결혼 생활이 나의 이십 대 청춘의 시작이었습니다. ‘어찌다 보니 결혼식장에 서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십 대를 보내는 나의 인생 앨범에는 어느덧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나간 청춘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가 주는 또 다른 결혼 생활의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찬란함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리고 언제나 그 중심에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6남매 막내며느리인 내게 어머니는 언제나 따뜻한 손길로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 따스움에 고부갈등이란 수식어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이 그날인 듯 흐르는 세월 속에 내 청춘은 간데없고 어느덧 갱년기에 접어드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미처 아무런 준비도 못 했는데 어머니는 나에게 큰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큰애가 대학교에 들어갈 무렵 ‘치매’라는 병마가 어머니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를 모신 지 이십여 년쯤 되었을 무렵입니다. 아파트 산책 중에 넘어진 어머니의 몸은 서서히 마비가 되어 외상환자로 오랜 세월 누워계셨습니다. 손으로 용변을 만지시면 씻겨드리는 일도 비밀비재했지요. 겨울에는 용변이 스며든 이불을 서너 채씩 빨아 댈 때도 있었습니다. 매 순간 이 두려움으로 온몸을 감싸고 흐르는 눈물이 마를 새도 없었지요.

그럴 때마다 나의 마음을 붙잡은 건 흔들림 없는 어머니의 아기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미동도 없는 어머니는 힘드셨겠지만 얇은 숨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 우리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흐르는 세월 탓에 우려했던 그날이 우리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구십 년 인생의 끈을 그렇게 놓아드렸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남편은 30년이란 세월을 함께한 어머니의 부재로 허전할 나를 위해 날마다 전화했습니다.

“뭘 해?”

“그냥 있지.”

“왜 그냥 있어. 바람이라도 쐬지.”

우리 부부는 이 똑같은 대화를 한동안 이어갔습니다.

“문화센터 등록한다며? 당신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면 어때?”

“알아볼게요.”

남편과 애들 성화에 주섬주섬 옷을 입고 미술 준비물을 사

러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아파트 주변 작고 아담한 김밥집 앞에 발길이 멈추었습니다. 유리창엔 ‘직원 구함’이란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간판도 마음에 들었던 이 김밥집에 발을 내딛게 되었고 이곳에서 내 인생 청춘의 2막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김밥 속 재료만큼이나 이야깃거리가 넘쳐나는 김밥집은 날마다 북새통을 이룹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한두 줄 사가는 음식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손님 한 분 한 분이 낮이 익고 그 사람들의 안위까지 살피게 되면서부터 나는 감정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내 기억 속 가장 애뜻한 손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연세 지긋한 노부부가 항상 점심시간 때를 맞추어 오셔서 새우 김밥 두 줄을 사 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할아버지 모습은 안 보이고 할머니만 오셔서 새우 김밥 두 줄이 아닌 한 줄을 시켜놓고 유리창 밖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새우가 튀겨지는 7분 동안 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세월의 뒤안길에 밀려 작은 체구 할머니의 뒷모습에 외로움이 묻어나서 연민이 밀려옵니다. 할머니라도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튀김기 속 새우를 이리저리 굴러봅니다.

잘 익은 새우 한 마리를 왕언니에게 건네면 따뜻한 손길로 왕언니는 김밥 한 줄을 잘 말아 드립니다.

할머니 연세에 비하면 이십여 년이나 젊은 나는 아직은 청



춘이지 않겠습니까? 이십 대의 청춘은 그 젊음만으로도 찬란히 빛나겠지만 육십에 맞이하는 나의 청춘은 그 못지않게 사람의 귀함을 알아가는 것이겠지요.

할머니는 그다음에도 그다음에도 김밥집에 오십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할머니를 위한 김밥을 맡고 싶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도 자야가 목소리를 높이며 출근합니다. 두 아이 학원비를 내기 위해 자기의 청춘을 저당 잡혔다며 열심히 김밥을 맙니다. 손님이 많은 탓에 자야의 청춘은 언제나 바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딸랑딸랑 문소리에 손님일세라 귀를 쫑긋 세웁니다.

“사장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장부 같은 달걀 배달 사장님은 칠십이 목전인데 우렁찬 소리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저희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는 떼창으로 답하며 웃습니다. 이것이 일하는 즐거움 아닐까요?

김밥집에는 젊은 아들의 꿈이 펼쳐질 청춘에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달걀 여사장님의 진한 모성이 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청춘, 배달 기사님들의 노고도 그 빛을 발하는 곳이기도 하지요.

참기름 향기 폴폴 풍기는 김밥집에서 늦깎이 청춘들을 귀인으로 만날 수 있는 하루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건 잘 지내라고 나를 응원하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선물이 아닐지 생각해봅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왕언니도 오십을 맞이하는 자야도 앞자리가 바뀌어 육십이 된 숙이도 찬란하고 농익어 빛나는 우리들의 제2의 청춘에 용기를 내어 외쳐봅니다. 말아라~ 청춘! 돌돌 말아라! 우리들의 청춘어!

오늘의 추억

글/그림 28

인천 남동구 호곡로 의

여성시대 가족 이진우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저는 인천의 크고 작은 현장에서
매일 아침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하루를 시작하는
마흔한 살 도배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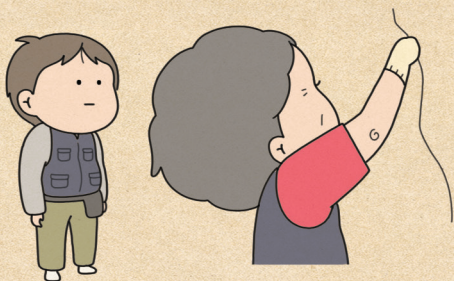
그리고 이 분은
올해로 예순셋을 맞이하신 저의 사수이자
가장 존경하는 저의 파트너, 어머니입니다.

마흔한 살이면
도배 현장에서서는 비교적 젊은 편이지만



현장에서만큼은 어머니의 예리한 눈썰미와
체력을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남고 공팡이 핀 벽지를 사정없이 뜯어내고
차가운 시멘트 벽면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묵묵히 일하시는 어머니의 옆모습을 훑쳐보곤 합니다.



어머니의 손등 위로 새겨진 세월의 주름과 굳은살을 보면
마음 한구석에 돌덩이를 얹은 듯 묵직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다



엄마의 청춘은
원래 어떤 색이었어?
무슨 꽃을 좋아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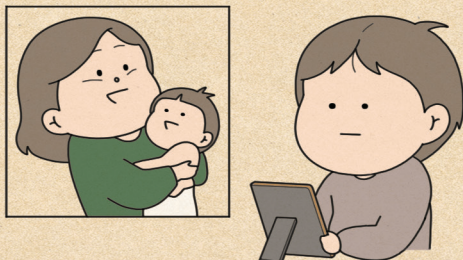


입 밖으로 차마 내뱉지 못한 질문이
목구멍으로 차오릅니다.



이제는 좀 편히 쉬셔도 될 나이인데,
엄마는 오늘도 거친 현장에서
자식의 앞길을 위해 기꺼이 땀을 흘립니다.

엄마의 칭찬은 한 번도 피운 적이 없는데,



마흔이 넘은 자식의 칭찬이 조금이라도 화사하게 퍼지길 바라며
당신의 남은 기운으로 자식의 뒤를 묵묵히 지키고 계신 것 같아
가슴 한 쪽이 미어잡니다.

끝나고
고기 먹으러 갈까?



좋지~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당신의 칭찬은 하얗게 바래버린 엄마.
이제 남은 세월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따듯하고
화사한 실크벽지처럼 가득 채워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도배사 우리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나의 청춘은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나이 들며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기대했던 게 착각이었나? 이 집 저 집, 이 일 저 일 겪으면서 늙어가는 게 삶인가? 늙어가며 겪는 모든 여정이 다 처음 겪는 것이니만큼 겸허히 받아내며 계획한 일정들 다 차례차례 잘해야 겠다고 생각한다.

며칠 전 최유라, 이성미, 송승환, 김수철과 점심을 먹었다. 나이 들면서는 밥 먹을 때도 주로 점심 모임을 갖는다. <싱글빙글쇼>의 예전 진행자 김혜영은 지독한 감기로 결석을 했다. 그날의 점심과 커피, 후식, 주차비는 최유라가 몽땅 짊어지고 썼다.

송승환 옆에 앉아, 곧 각막이식 수술을 앞둔 내 이야기를 했다. “오른쪽 시력은 뭐 거의 안 나오네…” 했더니 “아유, 망막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망막은 맨 뒤에 있으니 머리 뒷부분을 열 수도 없고 이식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지요” 한다. 세상에 둘도 없는 긍정의 아이콘이다.

그는 고민 때문에 속이 상해서 코 박고 죽고 싶을 때도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다. 아무리 큰 고민도 그해 연말이 되면 하나도 기억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해진다고. 나와 여성시대를 진행할 때도 몇 번인가 그렇게 말했다.

우린 둘 다 옛날식 속어로 ‘앵벌이’ 출신이다. 어린 날 부터 집안의 경제 내지는 화폐를 조달해 왔다. 그래서인지 주변에 비슷한 처지의 후배들을 보면 마음이 짝하다. 어린 날의 마음고생과 짙어진 생활의 무게가 어른들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뭔가 주파수가 비슷한 공명 같은 게 찌르르르 온 마음으로 느껴진다.

올 여성시대 신춘편지쇼의 글제 ‘청춘’도 나에게겐 아픔으로 다가온다. 소위 대학 입학 후에 구가하는 모든 즐거

움과 자유, 갈 길 몰라 이럴까 저럴까 하는 방황조차도, 첫사랑의 설렘과 가슴앓이도 겪어보지 못했다.

그냥 잠이 모자랐고 배가 고팠으며 명동 스테이지와 방송국 스튜디오로 바쁜 발걸음을 옮겼다. 통금이 있던 시절 마지막 운행하는 막차를 놓치지 않아야 하기에 저녁 10시 반쯤 되면 기타통과 책 보따리를 메고 냅다 뛰었다.

결국 두 번의 휴학과 한 번의 자퇴, 마지막엔 재입학까지 무슨 군대 다녀온 복학생처럼 만 7년 반 만에 졸업을 했다.

그리고는 곧 30대를 맞으며 빗 값기도 끝냈고, 14개월의 배낭여행으로 청춘을 마감했다.

귀국 후 암 수술과 더불어 석 달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뒷얘기들은 다음 호에 계속….

감사의 마음



김일중 | 여성시대 진행자

매년 5월이 되면 달력이 유난히 바빠진다. 어린이날이 지나면 어버이날이 오고, 스승의 날이며 가족 모임 약속까지 이어진다. 젊을 때는 그저 공휴일이 많은 달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누군가를 챙겨야 하는 달’이라는 의미가 더 크게 다가왔다. 아마 내가 우리 아이들의 부모가 되고서부터 달라진 거 같다. 아래로는 두 아들의 어린이날을, 위로는 아내와 나의 양가 부모님을 챙겨야 하는 것이다.

먼저 찾아오는 5일 어린이날. 두 아들이 꼬꼬마 시절에는 어떤 선물을 해줄지 또 어디로 가서 함께 놀아줄지 고민이 많았다. 한창 두 녀석이 ‘터닝메카드’에 빠져있을 때 그 만화영화의 주인공 캐릭터 장난감을 사주고 싶어서 웃돈을 주고 온라인상에서 구해주기도 했다. 물론 어렸을 당시 변신 로봇에 열광한 적이 있는 아빠의 극성스러운 사랑이자 자기만족이 작용한 탓이다. 아내는 굳이 그렇게까지 사줄 필요가 있냐고 했

지만 그 선물을 주고서 아이들보다 아빠가 더 신났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어느덧 두 아들이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되었다. 이제 아빠의 면도크림을 공유하는 변성기 지난 남자가 되어버렸고 어린이날은 그저 학교 안 가는 휴일로 받아들인다. 이제 친구들과의 약속이나 학원 일정이 더 중요해 보인다. 그러기에 우리 부부도 더 이상 어린이날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서운하다기보다 이제 다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좀 있음 군대가겠네. 연달아 한 놈씩.

그런데 이놈들이 어버이날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도 유치원 때나 초등학생 때는 수업 시간에 만든 카드와 카네이션이라도 준비해 줬는데 이젠 그런 것도 없다. 아니 뭐 어린이날 아무것도 안 받으니까 어버이날 아무것도 준비 안 한다는 심보인지. 그래도 그건 아니지. 여성시대 사연에서 배웠듯이 한 번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감사 표시를 어찌해야 하는지 말이다. 어린이는 좀 크면 청소년과 성인이 되지만 한번 어버이는 죽을 때까지 어버이 아닌가 말이다.

이렇게 어린이날이 지나고 8일 어버이날이 온다. 역시나 올해도 양가 부모님께 용돈은 어찌 챙겨드릴지, 식사는 어디서

하면 좋을지 고민했다. 올 엄마 아빠를 챙기는 부분은 내가, 장인 장모님을 챙기는 건 아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기 마련이다. 그나마 처가 어르신들은 서울에 살고 계셔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지만, 우리 부모님은 대전에 계시기에 날짜 조율부터가 만만치는 않다. 차로 안 막히면 두 시간 반, 기차로는 한 시간이면 가는 거리지만 학원으로 바뀐 두 청소년과 주말 근무도 있는 아내 모두가 일정을 맞추기란 쉽지가 않다. 해서 나 혼자 대표로 다녀온 적도 두어 차례. 대전에서 두 분 근처에 결혼해 살며 살뜰히 챙기는 여동생에게 요즘 들어 고마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제 우리 부부의 나이도 마흔 중반을 넘었기에 양가 부모님 연세도 모두 일흔을 넘기셨다. 뵈 때마다 조금씩 희끗해지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안쓰럽고 신경 쓰인다. 더 이상 노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노쇠하지 않겠지. 앞으로의 어버이날을 더더욱 잘 챙겨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스승의 날. 학창 시절 고마운 은사님들이 계시지만 올해는 특히 내 옆에서 늘 빛는 희은 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항상 많이 배웁니다. 건강하세요.



행복을 찾는 사람들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척추·관절 특화 병원



IBK기업은행 평촌지점 거래고객

제이에스병원 김제균 병원장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병원은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 최고의 병원이란 환자 중심의 병원이라는 뜻이다.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환경, 정확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오직 환자 중심의 치료를 하고 있는 제이에스병원은 서수원 지역의 대표 척추·관절 특화 병원으로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제이에스병원은 척추·관절 특화 병원이다. 서울대학교 의대 출신 의학박사 동문 여섯 명이 의기 투합하여 지역 환자들의 척추·관절 건강을 책임지고자 2019년 수원 금곡동에 개원하였다. 현재 관절센터, 척추센터, 수·족부센터, 소아정형센터·성장클리닉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첨단 의료 장비 및 123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다.

제이에스병원은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재 위치에 건물을 신축하여 병원을 개원하였다. 병원은 다른 건물들과는 달리 환자를 위한 특별한 설계가 필요하다. 엘리베이터도 환자 운반용 침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고 환자의 안전, 감염 예방, 동선 등도 고려해야 한다. 아픈 환자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과



편리한 시설은 필수다. 제이에스병원은 환자를 위한 최적의 환경과 더불어 대학병원급 수술실과 체계적인 재활 시스템 운영으로 환자 중심의 병원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제이에스병원의 가장 큰 자량은 실력 있는 의료진이다. 현재 정형외과전문의 9명, 내과전문의 1명, 영상의학과와 마취과 전문의 각각 1명 등 총 12인의 전문의가 상주하며 환자들을 치료한다. 정형외과 뿐 아니라 영상의학과와 마취과 전문의 모두 서울 의대 동문으로 각각 대학병원 교수 및 전문 병원 등

에서 다양한 커리어를 쌓아왔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실력이 뛰어나다. 더불어 동문이라는 특성 덕분에 의료진의 팀워크가 좋고 소통이 원활하여 환자를 치료하는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무릎·어깨·척추·수족부 전문 분야별 원스톱 협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어떤 환자가 와도 대응이 빠르고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다.

개원과 동시에 서수원 최초의 통합간호간병 병동을 시작하게 된 것도 제이에스병원의 자랑 중 하나다. 2020년 12월부터 안전하

집 앞에서 만나는 서울대 의료진!



고 질 높은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병에 따른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늦은 시간까지 내원할 수 있도록 평일에는 매일 밤 8시까지 야간 진료를 실시하여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병원을 개원하면서 가족을 맡길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만큼 환자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고 싶다는 뜻이

있어요. 실제로 직원들이나 지인들의 가족들도 많이 진료하고 수술 하였습니다. 옆에서 함께하는 직원들이 가족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저를 신뢰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감사하죠. 앞으로도 환자 모두를 가족처럼 생각하여 환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치료를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제이에스병원 전문가들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하여 지금까지도 논문 발표를 이



어가고 있다.

IBK기업은행 평촌지점 최진용 지점장은 “IBK기업은행 평촌지점은 제이에스병원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진료

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이에스병원이 추구하는 가치인 ‘가족을 맡길 수 있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응원했다.



IBK기업은행 평촌지점 최진용 지점장(왼쪽)과 제이에스병원 김제균 병원장

❶ 제이에스병원 김제균 병원장 운영 노하우 3가지

1. 최고의 의료진·최고의 진료를 제공하라.
2. 끊임없이 새로운 의술을 연구하라.
3.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라.

제이에스병원

병원장 김제균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96번길 76, 3층~7층

전화 1800-5446

홈페이지 <http://js-hospital.com/>

월

여성시대, 100인에게 묻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일들, 여성시대
100인에게 물어봐 주세요.

화

열린 화요일

여성시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수

수요일엔 님과 함께

삶의 무게가 버거운 분들
성진 스님, 하성용 신부님과
고민을 나눕시다.

목

남성시대

남자라서 느꼈던 삶의
애환들과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 남성시대 앞으로
보내주세요.

금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소소한 육아 고민과 청소년
자녀와의 갈등이 있으시다면
사연 보내주세요.

토

옆집 변호사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법의 울타리
안에서 헤쳐나가 보아요.

토·일

명곡극장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세요.

일

여성살롱

매달 특별한 이야기 손님을
모시고 모든 분야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keykney<키코니>의
IBK기업은행을 알려드립니다!

IBK 금융 네트 플레이



IBK x 키코니



IBK급여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

IBK급여라운지

이벤트 바코드가기

매달 커피 3잔쯤
IBK가 금메달!!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26-2968호(2026.04.13) [유효기간: 2026.11.30]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AI × IBK

AIIBK



초개인화 서비스

압도적 데이터 처리 능력

AI의 혁신 기술과

기업금융의 노하우

국책은행의 신뢰도

65년 기업금융 전문성이 만나

내일을 창조하는
대한민국의 금융지능이 됩니다

세상에 없던 금융지능의 탄생

① 초개인화 서비스

② 기업금융 AI 고도화

③ AI 친화적 경영